東亞日報

今日八面

新聞價 壹部金五錢 △參個月貳圓九拾錢 △六個月五圓七拾錢 △壹個年拾壹圓拾錢 △地方必要先金
廣告料 五號拾四字壹行壹圓 同雜報欄內貳圓 四號拾九字壹行壹圓五拾錢 貳號七字壹行貳圓 指定料五號壹行參拾錢 揭載日指定料五號壹行五拾錢

發行人兼編輯人 金鐵中
印刷人 趙宜淳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電話(光化門) 一九○○番 一九○一番 一九○二番 一九○三番 振替京城三五五番

무엇에서새로워야할가

一

새해새해하야도 屠蘇氣分에 서쌔을만치 日曆이벗겨여러장을제첫다 新聞에雜誌에 커단題目論文이와작물어서 一年一次씩同顧檢討되는 定例의問題가 前가치한차레되풀이가되엇다 社說은가로대 政事와한가지人事도새로워지라하고 名士談은가로대 새로운男氣로서 새로운目標까지가고말자함과한가지 새해朝鮮의報紙上에는 一年間民族生活과經濟的決算과 社會運動의概念的評斷이아모것보담몬저우게論議되엇고 또한年例를지엇다 그런데 그內容을들작시면板에박은드시 經濟力은무서운破滅에정말에젓다함과한가지 社會運動은槪念的에서實際的으로 氣分的에서組織的으로轉變하되 그業績도자못든든한것이다함이 또한例에依하야例와가틀음보다 經濟論을보다가닭답하얏든가슴이 社會運動史에이르러서는 밝음빛에들어선것以上으로환하고시원해짐이 今年이昨年갓고 昨年도前年과가틀을보다

二

經濟生活의窮迫이 진실로걱정을超越한큰걱정임은 이제새說할것업는일이지마는 一邊으로아모것보담經濟改化를眼目으로하는社會運動、經濟의社會化運動이 과연誠實과光明에充滿되엇다할진대 그리됨만한經濟努力과 그리할만한社會良心이 진실로俱足하다할진대 東隅에失한것을 桑楡에서거둘수잇슴이分論이다 몹은經濟國에서죽어가지고 새로운社會線에서살아나게됨이무릇반갑고탐탐한일일것이다 그러나冷靜히公平히省察하고觀察하고探照해보면 社會運動만의必然한樂觀論이 經濟狀態의必然한悲觀論만치正實切當한것일가 온갓것이다曖昧에싸히고殺缺에걸려서『살음』으로의一條路를버느구석에터야할지알려아주마바한中에 과연社會運動線上에만 吉祥의前路를벗최고 飛龍이수레를움메고잇슬가 歷史的宿業에ㅅ怨한 온갓悲報와 民族的秘密에ㅅ限한 온갓謬點이 오즉우리의社會運動의우에만 그痛牙를벼르지아니하고 그陰影을던지지아니하야 그本來의使命이順進主克果되는中에잇슬가 우리의唯一한活路가社會運動의方面에잇다하면그만치이方面에對한期待가切實해야할것이오憂慮가股深해야할것이오批判이嚴峻해야할것이오改化가誠意해야할것이分論이다

三

조흔同願와 바른反省은 언제든지眞實한進步의前驅일것이다 탄탄한징을엇지오려하는이는 지경다짐에容恕가업슬것이오 죽고살기를決判하는일에는 아모것보담自己催眠의過大評價를忌할것이다 浮論에서嚴酸으로 虛影에서實地로의 不斷한努力과한가지 嚴厲한省察을부즈런히할것이다 時代熱에띄우거나 群衆暗示에입여서 錯覺과誤信으로써경정거림은 決코忠實한人生建築者의일도아니오 大理想擁護者의일도아니다 첫재一다른모든일에서 풀고로獎勵된 朝鮮人의非大同的非實際的非科學的缺陷이 社會運動의우에는 얼마나 어떠케들어낫는데 거긔對해와努力은얼마나되는가 둘재 설사朝鮮의社會運動이과연內容도어지간하고 步調도번듯하다할지라도 그만한程度의實力이 이窮하고급히殘滅해들어가는 危迫한生命을救미하기에足할만콤充實을足하다할것일가

四

지난一年間의社會運動은 過去에比하야 飛躍으로써하락할만한一進步를보인것도事實이다 空漠한彷徨에서 民族이라는實行單位를곳상은것만으로도 光裁를씌워서왓다할만하다。이것이설사試練과體驗속으로써自發實行한것이라하면 그야말로넘처오는것봉솜뒤집어쓰고도남을일이지마는 설사他導的의것이라하야도正當한일에는 正當한감사싹지어다니는만콤또한그만치반갑고탐탐스러운일이다 그러나朝鮮의救援이란것이 하도沈痛하고또深痛을要할일인만큼 하도實際方略의急急을要하게되니만콤여간한일에마음이싙허지지아니할을 社會運動의進路에도돈기지아니할수업다社會運動이陷溺朝鮮의唯一한救命綱이라는것만콤그에對하야燥急한責備慾이썩上할을禁할수업다 社會運動이과연 新朝鮮을獨擔하려하는가 그러면몬저峻嚴한自己批判으로써運動의實質에臨하고 新銳한自己改造로써 價値의轉換을꾀해야할것이다 朝鮮이全體로 內省時代에잇거니와그中에特히同光反照의要를든기는者도社會運動이라할것이다 深刻切實한新部面을開拓함이엽스면社會運動의期待도별수업다는말이생기지아니할가저퍼한다 엇더케참으로새로운해를만들가 아모것보담더社會運動에서참으로改新되는 一年을보아지라한다 社會運動은時代의銳角이오 新生命의 心核임일세이다

로카르노條約問題로 佛國內閣暗鬪
意見相違로分立狀態

佛外相『브리앙』氏는二三의閣僚를同志로하야首相『포앙카레』氏及大多數의閣僚를不顧하고『로카르노』條約에關한外交政策의實施適用에對하야佛國西內閣에大暗鬪를釀成한바同內閣은方今全혀分立狀態로되야容易히意見이綜合하지안는다더라(巴里四日發)

米海軍豫算 三億三千萬弗
巡洋艦十隻은別個

米國海軍豫算案은豫算委員會의審議를經하야三日下院에報告된바其總額三億二千四百三十九萬四千六百八十弗이다本案中에는昨年議會에서可決된巡洋艦二隻最近海軍委員會에서提案한巡洋艦十隻의建造費는不含하엿는데巡洋艦十隻은本豫算案과는關係업시獨立한것이며又別로히航空豫算으로서一千九百七十九萬弗을要求하는바航空費는右以外에別로五百萬弗을計上하고잇다右提案說明의任에當局者의證言에依하야大統領『쿨릿지』氏가海軍長官『윌버』氏와飛行船新造에對하야意見이다른것이暴露되엿더라(華盛頓三日發)

蘭領수마트라에 共產黨革命勃發
交通遮斷、通信杜絶

『자바』廝電報에依하면『수마트라』의西海岸에잇는『소로에키』地方全部에서共產黨員革命이勃發하야停車場從業員襲擊、車輛及電線을破壞하고列車의運轉及通信을遮斷中인바共產黨首領『나가레크』氏는逮捕되엿더라(암스터담三日發)

森林利權交涉
協定成立期待

露領森林組合과露西亞政府間의沿海州森林利權交涉은昨年代金支拂에對한爲替의建値問題로거의談判이破裂한狀態에陷하엿던바途中『옵페』氏의仲裁로겨우一緩의希望을뵈치고越年하게되엿는데四日海浦代表로부터東京露領林業組合本部에達한情報에依하면露國側은爲替問題에對하야讓步할意思가잇슴을示하고此에關한覺書를提出하기로되엿스나不滿足한點이잇서서日下再訂正을거듭하고잇다는데協定成立의希望이잇는듯觀測되더라(東京電)

赤露의國內移民
三萬六千三百家族을 極東과西伯利亞로

勞農露西亞에서來年度의國內移民計劃을決定하야西伯利亞及『카자크스탄』地方에二萬七千家族、極東『사가렌』에九千三百萬家族移民計劃下에一家族에對하야二百留乃至三百五十留의奬勵金을下附하기로되엿더라(莫斯科電)

宣統帝日本留學說

巴里에서傳하는바에依하면事實上監禁同樣의境遇에잇는天津의宣統帝는一月十五日同地를出發하야四個年豫定으로日本에留學할터이라더라(巴里三日發)

露都市人口益增加
國勢調査結果

露西亞에서는去十二月十七日에全國에亘하야國勢調査를行하엿는데그結果莫斯科의總人口二、○八一、八八八人(男九八九、九九八、女一、○八二、八七○)으로一九二○年의五四二、八七四人에比하야顯著히增加를示하엿고又『레닌그라ー드』에서는一、六一一、○三○人으로此亦最近六年間에九十萬人을增加하엿고又『키에프』는四九○、○○○人、『하바롭스크』는四九、○○○人으로同地는一九二四年에는二四、○○○人이엇다此人口增加는極東의政治中心이『하바롭스크』에移한外닭인바大體로보와大都市의人口가顯著히增加하엿더라(莫斯科電)

極東政局의將來【五】
崔元淳

十二

中國의政局이 이미南方政府의勝利에기우러지는形勢를보고 가장크게놀내는나라가英國이다 異民族을虐待하고搾取하기로이日技術이熟達한것이英國외엔아니다 그罪가사라질수업는것도英國이다 英國이今日中國에서가지고잇는利權으로말하면 第一로巨大한것이니 第一로稅關行政을들수잇다 이것은中國의國家的財政을左右하는것이라고하야도 크게틀님이업다 即英國은이以今과가치稅關行政을自己手中에넛코잇는것은 中國의國家財政을支配하는 重大한性質을가진것이며 그우에또그에附한것이잇스니 鹽稅가그것이다 그것에만곳치지아니하고 또鐵道가잇다 鐵道利權으로말하면 英國이 列國中第一位를 占領하고잇나니 約四千哩이라고하는바 그中에미敷設된것이二千哩에達한다 出資總額이未支拂까지合하야 約五億圓에達하고 線路로말하면 京奉、滬寧、湖廣等重要한것을 가지고잇는것이다 그럼으로 英國은中國이 內亂으로因하야 이線路가運轉을中止하게되는것을 크게憂慮하는것이다 ㅅ라서鐵道의國際管理說에는 英國이熱烈한贊成者가되다 關稅會議當時에도鐵道에對한 投資를確實히하기爲하야 海關增收中一千萬元乃至二千三百萬元을建設費로支出하자는案을提出하고名目은 建設費에봊친後實際에잇서서는建設費로도쓰지만은 一方에잇서서는 投資된英國돈의利子로도回收하자는것이英國의배人장이엿다 이만콤英國은鐵道가中國에回收되는것을꺼리는利害上關係가잇는것인데하불며正義나人道라는名目下에 廉價로英國의利權的鐵道를中國에 팔게되는데야엇지順順하게應할 理致가잇스랴 그럼으로中國四億人이主張하는關稅自主權 一步를進하야稅關行政의回復 이것이目的을達하면 다시鐵道回收에外지가는고말것은明瞭하게보이는 理路이니劈頭에 日本이關稅自主에同意한關稅會議를 不成立식허러고하던것도 免하지못할바이엿섯다

十三

그럼으로英國은機會만잇스면 長江一帶에잇서서 近來動搖되는英國의地盤을確立하기에焦慮하던것이다더욱히昨年六月二十三日沙面事件以來로 繼行된排英經濟絶交로總罷工이이러나서 香港에서바든英國의打擊은實로 英國의對中發展上絶對한威脅이엿섯다그罷業이그와가치前無한偉力을發揮한것은 다시말할것도업시 廣東政府가 存立한所以이엿섯스니 英國의見地에서는 百方으로廣東政府의倒壞에注力할것도 當然한일이엿섯다 그리하야去年八月二十九日에突發된長江上流의萬縣事件은크게 國際的問題로發展식히여서 그것을 口實로하여가지고 다시 長江一帶에잇는 英國의勢力을 盤石우에 세우려고하야 或者는『맛당히 實力으로써 中國의迷夢을打破하라』고까지 主張되던것이다 英國의 國力이 또不幸히今日에잇서서 中國을 兵力으로써 壓倒할수잇섯더면 上海事件、罷業、萬縣事件等을 英國이武力으로써 中國을攻擊할 口實거리는여러번잇섯스니 이미英國軍隊는 宣戰布告를하고 中國南方에와서 어느한便을占領하고잇슬는지도알수업다 그러나 多幸히今日의世界大勢는 또英國의國力은 中國을그와가치蹂躪하지못할形便에잇는것이다 그럼으로英國은一步又一步 中國에對하야 讓步라할가退步라할가 如何間失敗의 길을밟고잇는것이다 그러되는것이必然한 理致인지안닌지는 알수업스나 事實에잇서서는 英國은敗하고 廣東政府는 勝하야 더욱 乘勝長驅하는 形勢를지고잇다 그리하야頑强한大帝國인英國도할수업는貌樣이다 畢竟은中國에잇던公使를다시選任하고 對中政策을根本的으로變更하는데이르럿다

十四

即英本國에잇서서 去年十二月에와서는 强硬論이어데로드러가고 英外相이廣東政府와談判하고저한다는外電이잇슴뿐아니라 英勞働黨은即時南方政府의承認을主張하고 其他輿論도一變한感을주엇다 事實上이것은 廣東政府에對하야在來와갓치英國이强硬論으로만간다하면長江以南에잇서서 英國의經濟基礎가根本的으로破滅을當할念慮가잇는것을英國民이깨다른結果라고할것이다 그리하야去年十月一日부터廣東政府가聲明한增稅即普通輸入貨物에二分五厘、輸入奢侈品에五分의消費稅또한輸出品에二分五厘의生產稅賦課에對하야 英國은이것이分明하게廣東政府의條約違反의行動이오 그뿐아니라十月十四日北京政府의否認이잇섯슴에不拘하고默認을하엿다 이것은確實하게斷言할수는업지만은 英國이廣東政府에對하야 排英行動을中止하면 그것도關係치아니하다는約束에서나온것이안인가한다 新進氣鋭한『람프손』은赴任途中十二月三日上海에到着하야在留英商人을召集하고意見을들은後北京에가는途中면저漢口에갓섯다九日漢口에간後國民政府外交部長陳友仁과來往하야會談한바가잇섯다하는바『람프손』은非單陳友仁뿐아니라九江에서蔣介石과도相談하엿다고한다그리하야 用務로말하면英國이中國에對하야이미어느腹案을세워가지고南方政府承認問題에關하야意見을交換한것이라고한다英國의態度를보면即十二月十八日北京外交團會議에서提出한英國의新提案으로보아서도 그內容이重大한것은勿論이지만은 萬一列國이그에贊同하지아니하면英國單獨으로라도斷行하려고하는氣色이보인다는點에서 確實히英國의對中政策이一大轉換됨을發見할수잇다 이에서가장크게놀난나라가日本이니 關稅議會劈頭에 日本代表의演說을듯고英國代表의胸中에서上下되든心臟의鼓動은 다시이번에日本公使에게 服酬될感을두기지아니할수가업다(寫眞은람프손氏)

英新提案을 米政府重大視
駐中公使에歸國命令 華府서折衝?

米國政府는英國의關稅附加稅實施에關한提案을重大視하야國務卿『켈록』氏는駐中公使『마크머레이』氏에게至急歸國을命하엿슴으로同氏는橫濱出帆의最近船便으로歸國할터인데右는日、米、英三國交涉을華盛頓에서進行할意嚮이라觀測되더라(北京四日發)

米上院議員 輕巡洋艦
建造를力說

米國上院議員『존손』氏는三日上院에서演說하되米海軍은英海軍보다弱小하고日本海軍보다도훨신劣等한바此際五五三의比率은米國을爲하야增加하기를要求한다一九二二年外지에新巡洋艦十七隻을建造하야主力艦의速力增加와布哇의防備를强固케할事를要한다吾人은軍備競爭을阻止하는範을示하야軍備制限의試驗을試하엿스나其試驗은失敗되고말앗다只今吾人으로서海軍力에絶對的으로他國에落後할을希望한다면吾人의行할것은다못一事가잇다即輕巡洋艦建造計劃을始作하야적어도米海

杭州富陽間서 南北兩軍衝突
孫軍數十名負傷

三日午前二時杭州富陽間에서孫軍과革命軍이接觸하야杭州에砲聲이殷殷히들니든바正午에至하야砲聲이止하고孫軍의負傷兵數十名이杭州에護送되엿는데孫軍은四日總攻擊을開始할터이라더라(上海四日發)

國民政府 漢口稅關占領
數名委員이事務監督

國民革命政府는三日부터漢口稅關을占領하고數名의委員으로하야곰關稅事務를監督케하기로되엿더라(漢口四日發)

中人民事는 衙門引繼로
中當局서處理

上海佛國租界의衙門을畢竟五日부터中國側에引渡하기로되엿슨데今後는共同租界의衙門과同樣으로中國人의民事事件은外人의陪席업시中國當局만에서處理하기로되엿는데外人關係事件은佛國領事가代理者로서陪席한다더라(上海四日發)

軍의存在를列國間에認定케함이다更히氏는歐洲諸新聞의論調가歐洲各國間의協調와共히米國에對抗하야歐洲와日本과의協調를暗示하고잇슴에言及하엿더라(漢口電)

佐分利氏廣東行

佐分利局長은漢口의政情을全部視察한後이며또武昌政府의對外方針의具體的決定外지는尙且時日이걸닐듯함으로그間에廣東의事情을短時日에視察하려고漢口를出發하야廣東에向하엿더라(漢口電)

關稅自由를 承認할準備!
芳澤日公使의言明

一九○一年議定諸國會議는三日에開催되야日、英、米公使는英國案의附加稅無條件實施承認에對하야非公式으로意見을交換한바芳澤公使는英國案의缺陷을指摘하야日本으로서는更히나아가關稅會議의劈頭日置氏가聲明한것과갓치中國의關稅自主를承認할準備이고中國의內亂을助長하는것갓흔微過的提案에는斷然하列할수업다고言明하엿더라(北京四日發)

排英演說中 英國兵과衝突
漢口革命祝賀當日

三日漢口에各工會團體가革命成功祝賀의水陸大遊行을行하기로되기째문에英租界는最近排英熱이熾烈함에鑑하야萬一을備하려고陸戰隊義勇隊로嚴重警備中午後四時頃稅關前道路에서排英演說中의一團을追放하려다가衝突하야英兵四名中國勞働者二名이重傷하고雙方이急作히殺氣가臨하야一大事에至하려할지음에南名數氏가派遣한警備兵의出動으로雙方共히大事가업섯스며同夜는數萬의勞働者가水陸의大遊行을行하야共히危險한狀態이엿더라(漢口三日發)

中兵英兵에被殺

三日午後二時漢口英租界埠頭附近에서國民黨宣傳員과英國兵間에衝突이생기여中國兵一名이被殺되고二名이負傷하엿더라(上海四日發)

日清汽船罷工解決
會社側讓步로

以前부터罷業中이던九江埠頭人足中日清汽船關係의것은今番無事히解決되엿는데條件은會社에有利한것이아닌듯하더라(上海四日發)

三問題로 追擊質問
野黨各派策戰

第五十二議會開會劈頭即御大喪豫算可決後에內閣不信任決議案을出하자는論가野黨側一部에잇섯되엿든바政友本黨의反對로畢竟中止되고休會後外지持越하기로되엿는데來十八日再開後의議會에臨하야野黨側은各種의質問演說即不況恢復、綱紀紊亂、朴烈의三問題에對하야政本兩黨은十二名의鬪士를出하야猛烈한追擊戰을開始하기로하엿는데此中綱紀肅正問題에關한新正倶樂部의質問에政府는答辯을하야政府與黨과野黨間에激烈한應酬를行할듯하며又更히新正倶樂部에서大連取引場에關한五品問題의質問을提出하야野黨의氣勢를挫折할策戰을取할듯觀測되는바結局本協定委員이三問題를中心으로內閣糾彈의不信任案을上奏하게되야此에對하야政府는奏上을不肯하고解散을斷行할듯하야御大喪直後와解散斷行의關係는頗히微妙한關係가잇슴으로政府與黨並野黨各派의集合은新年과共히益益頻繁을加하야中央政局은緊張味를一層增加하리라더라(東京電)

注目되는 黑潮調査
三月中旬着手

昭和二年度에日本海軍의世界的大事業으로서列强에서非常히期待되는것은멀니中央亞米利加의西海岸에서發端하야赤道直下에서南洋水道를經하야琉球、九州、四國、本州에서千島列島에至하야寒流와合하야消하는暖流黑潮의徹底的調査인바海軍에서는此로因하야來三月中旬吳所屬特務艦『滿州』及橫須賀所屬의二隻을南洋群島에派遣하고更히四月에入하야서는豐富한本海를測量한吳所屬特務艦大和를四國近海에南下식혀此三測量艦으로長二千哩幅二百哩의黑潮流域의海洋組織을根本的으로研究하려하는者로此外艦上에서輕氣球를揭하야上層氣流의觀測을行하고特히東西帝大의海洋學者도同乘식힐터인데此完成은海洋水產航海에非常한衝動을與할것이라더라(吳電)

消息

▲李泰鎔氏(本社廣告部長)社務로昨五日新義州에出張

橫說竪說

◇全國各富豪에게、某某脅迫狀이配布된以來、警察은富者의住宅門간직히기에、餘念이업다고
◇그러나아즉盜屍者紺出에對하야는、何等對策이업는듯하다
◇張作霖은在滿同胞에게、軍資調達을强要한다고、馬賊出身이라、徵收手段을掠奪일더오지!

特別廣告

僞造藥注意

미국극상품보재약

▲신례의외부와 내부를건강케하는이세상에 데일귀중한 강장제(强壯劑)올시다
▲이보재약은보통보재약과달너서신례의 모든불결한것을매끗하게하야인생의신생명을줍니다
▲이약을먹으면구미를도읍고소화가잘되며 피를풍부케하며신경을건강케하나니다
▲보통보신재를먹어도효력이업거든이신긔한약을먹으시요신긔한영약(靈藥)은먹을때에만효험이잇슬뿐아니라먹고난후에큰효력이잇슴니다
▲누구시든지건강재를요구하시면미국극상품보재약을먹으시오장수하오리다

미국극상품만병수

▲이영약을복용하고수십만인은효험을보왓습니다이영약이수십만인을구원하얏스즉오늘날세지시복(試服)치못하신여러분도복용하시면효험보실줄로확신함니다
▲만일병이나서신고하시는여러분은한번잡서보시오백가지약을먹어도효험이업는여러분은속히복용하야보시오효험이잇스리다
▲약을복용코자하와광고책(廣告册)을보시고저하시는분은엽서(葉書)로써본원에통지하시면무대진정하겟삽나이다
▲이영약에합당한병의일홈을들어다말할수업기에 대강몃가지병만기록함니다
(본병)本病自得病、(담통)痰痛(감창)疳瘡(반신불수)半身不遂(해천)咳喘(사요증)敗溺症(신경통)神經痛(골절통)骨節痛(골통)骨痛(근골통)筋骨痛(목쉬병)火音(나력)瘰癧(채독)菜毒(습긔)濕氣(적병)積病(화달)黃疸(풍병)風病(가래토시)魚口瘡(종긔)癰氣(농종)膿瘇(부종)浮瘇(대창)大瘡(피풍)皮風(체증)滯症(모든풍병)諸風病(각긔)脚氣(음창)楊梅瘡(부모에게바든창)遺毒瘡(연주창)連珠瘡(방광습열)膀胱濕熱(음호열)陰戶熱(신열)腎熱(고질)痼疾(수창)水脹(복창)腹脹(변두)片頭(폐염)肺炎(마른긔침)乾嗽(토담)吐痰(오랜긔침)久咳(입에암내)口氣(현훈)眩暈(협픠에피어린병)肺血游(유병)遊病(인후)咽喉(식욕부진)食慾不進(만성림질)慢性淋疾(기타내외과각증)其他內外科各症

미국극상품금계랍

금계랍은여러종류가잇스나데일소흔금계랍을쓰시고자하시면미국극상품금계랍을쓰시오갓는다른금계랍보담조곰고등하나효력은멧배나더잇스니결국빗산금계랍은아니올시다

▲美國極上品補材藥 一瓶定價金貳圓
▲美國極上品萬病水 一瓶定價金壹圓九拾錢
▲美國極上品金鷄納 一瓶定價金貳圓四拾錢(三十丸) 半瓶定價金壹圓貳拾五錢(十五丸)

勿論某處하고引換代金으로酬應함
廣告册을見코저하시면無代送呈함

朝鮮釜山
美國醫學博士 魚乙彬 告白

ClibPDF - www.fastio.com

두부나비지드렁

생각나는대로 보는대로 …… 忙中閑人

오정때까지도 해빗을 시원하게밧지못하는 그좁진 수송동(壽松洞)골목으로는 『두부나 비지드렁!』하고 두부장사가 주춤주춤걸어나오다。은갓때가 더덕더덕발린 두부목판에서는 쌕! 연국물이 뚝뚝떨어진다。수염이 난듯만듯한 두부장사의 코시밋헤서도 쌕! 하면 코스물이 나올듯 나올듯한다。

◇

두부장사는 또한번 『두부나 비지드렁!』하면서 굽이진 골목으로들어서다。골목으로 들어서자 쓰레기통노힌 조막대문이 열리더니 치마스자락으로 코스물을씻으며 나오는 젊은부인은 거중스럽고도 취업는소리로 『두부장사!』하고 주춤주춤걸어가는 두부장사를 불은다。『비지』도되는 모양이데。『비지장사』라고는부르지안코 『두부장사』라고 불은다。이부인은만아니라 세상도다그러케 부르고 두부장사도、『비지장사』가 아니고 『두부장사』라고자처한다。그러면서도비지를 더 만히 파는때가만타。

◇

두부장사는 연긔가 무럭무럭나오는 조막대문 쓰레기통가에 지게를나려놋는다。지게는 상하이층으로되여 상층목판에는 두부가잇고 하층널반지에는 비지가산뎨미가치잇다。말하자면 두부는 상등(上等)을타고 비지는 하등(下等)을탄셈이니 두부는 상품(上品)이고 비지는하품(下品)이다。그러기에 상등만따르고 상품만 즐기는 세상에서는 하품인비지를 일카르지안코 상품인두부만 살어다가 『두부비지장사』를 『두부장사』라고불은다。

◇

두부장사를 불으든 그부인네는 비지두덩이를 손에들고 그조막대문안으로 들어간다。코스물이 나올듯나올듯하든 그두부장사는 비지두덩이를 팔아가지고 주춤주춤걸어간다。그리고 또한번 귀신이나서 『두부나 비지드렁!』하고 커다라케웨친다。지고가는지게에서는 여전히 쌕! 연국물과 비지국물이 한데석겨서 뚝뚝 떨어진다。

◇

저두부장사의 지게상등에잇는두부가 다 팔린뒤에는칠만당안의 어느집에서든지、알미늄쟁감』속에 무쐬개가 보굴보굴 끌흘것이다。그리고 저지게하등에잇는 비지가 다팔린뒤에도 칠만창안의 어느집에서든지。『질그릇 뚝빼이』속에비지찌개가 부실부실 끌흘것이다。

◇

나는 길가에서 이것을보고 이러케 생각하고 이글을쓴다。이글을쓸때에도 그두부장사의 웨치든소리가 귀에 남어잇고 가슴에 남아잇다。독자제씨도 또한번 들어보십시요、

『두부나 비지드렁!』

逆境에서 順境으로 (一)

─社會各階級의實地體驗談─

進出하든經路가如何

父親은海外로亡命 兵火에草家灰燼

間島로流離하다順境에든李明淑

─○○운동으로부모일코집일코 이리저리다니다서울서정혼해─

내가지금 소개하려고 하는이는 함흥(咸興)출생으로 어려서부터 모든고생과싸아리고차되찬 이세상과 싸우던명숙(李明淑=假名)(三〇)이란녀성이외다

十歲에첫苦生

만세운동이 후부터 그가열살이가되던해에 긔미년만세운동(萬歲運動)이 일어낫습니다 그의아버지는함흥에서 도 이떠라는이로 넉넉지못한가산(家産)조차 민족사업과교육사업에 모조리희생을식히고 밀려오는 긔미운동의파도(波濤)에 싸허여 사랑하는안해와어린자녀들을 집에남겨두고멀리북으로북으로 동지를따라가고말엇더랍니다 그리지안어도민중을위하야 헌신하는가뎡(家庭)에태여난그이니 어려서붙어고생이엄섯겟습닛가 마는 그의아버지가 집을떠난후로부터더한층 음울의구렁으로드려가게되엿섯답니다 그러하야 주인이떠난지두달이채못되야 그집에는 먹을것이업고때일나무가업서서 낫이나밤이나온가족이긔한에울음을 울게되엿섯답니다

집外지兵火에

○○단부친두신은

여엽는광음은 쉼새업시가고무정한세상일은 맘과가치되지안어 처자를두고멀리떠난그의아버지가 사년이지나계해(癸亥)년겨울에 남몰으게돌어왓드랍니다 그째에그남편과그아버지를맛난 명숙의모녀야엇더케깃부고 엇더케슯헛겟습닛가한바탕 울음을울고한바탕깃븜의웃음을웃첫슬것이외다 그러나그들에게는 그런깃븜이오래가지못하고 아버지와어머니와아들딸이 한자리에모혀안저 그리웟든회포를 이야기할새도업시그아버지는 경찰의싸르는눈치를채이고 그만어되로또다시몸을피하게되엿더랍니다。그러나태산가치밋든 그남편과그아버지를 또다시여이게된 그집에는 간장을녹일 울음이채못나기도 전에 뒤를밟는군인의모습에결려 아연(俄然)허는산숙에명숙의어머니와 명숙이남매가오밤을울음으로새이고 사년동안의지하고이든집은 군인들의손에 그만 재가되여바리고 말엇답니다

◇리명숙

母親도죽엇길

옵바따라북간도에

모진세상의불길에 아버지를일코 집까지일은명숙의운명은또다시험한역경에들어 남의집곳방에몸을부치게되자 설상가상으로 명숙의어머니가병으로눕게되야 엄마를지내게되자 아모리 명숙의효성이고아모리 더살겟다는 애쓰든그로도하음업시쓸아린세상에서 한만흐일생을남겨두고 그만영원의질로떠나 불상한명숙의몸은이길로부터 차해에또 조(粟)알이되야 어느언덕에부칠곳이업게되엿드랍니다 불상한명숙은옵바와가치 그나마정든고국을등지고 멀리북간도(北間島)에잇는 큰언니의집을차저가 친척한형의남편의주선으로 학교에도다니고 종교도밋게되야 험악한인간미도를버서나 신앙생활로삼년을지냇더랍니다

昨秋에再逢春

이제부터순경으로

그러나 그의운명은그에게는그만한생활도 더 계속하게못하여뜻밧게 함흥에잇는 그의게모에게끌려 함흥으로 돌아왓다가 또다시 모든고생에서버서나 작년삼월초잇흔날에 처음으로 서울땅을 밟어처음뜻은직업부인 노릇을 하더라도 그러치도 못하면 북간도큰언니에게 폐를써서라도학비를어더공부를하리라 하엿지만은그도또한 한마당꿈이되고말엇다 한강을생한지도 여러번되엿지만멀리잇는 아버지가죽은어머니와옵바의정경을 생각한그는 맷번이나 그마음을돌리여새로히살길을찻기에 애를 썻드람니다 넘고넘은길에서헤매이던명숙은작년구월에 시내모학교에서 교편을잡고잇는 어느청년에게 몸을바치여 과거에지내온모든 역경을이저버리고 지금은쇠치필듯한가뎡생활에 평화로운꿈을꾸고잇답니다 市內延禧洞投

丁卯生도가지가지 (一)

春香本邑南原出生

往生을佛에依托

─불전수도로왕생극락을꿈꾸며 망내딸집에서여생을질거웁게─

雙童寡婦朴女史來歷

금년은정묘년、정묘생중에도동년동월동일동시에 한어머니배속에서 똑가치태여나 똑가치늙어가는두분마나님의 야뭇한이야기、긔자는 그쌍동마나님을게동(桂洞)백번디의딸 진주현(晋柱鉉)씨의집으로 차젓습니다

◇

형되시는분은 박사시회(朴四時禧)씨、동생되시는분은 박공명선(朴孔明善)씨、모다불가(佛家)의일홈을가지고 잇는데 그두분은 수십년이래불교의독실한신자로 형되시는박사시회씨는 방금불도(佛道)를더욱닥고저 전북익산군북일면 (益山郡北一面)도치암(道峙庵)이라는절 불법연구회(佛法研究會)에나려갓다고 동생되시는박공명선씨는 자택에서홀로왕생극락(往生極樂)할도를 닥그며 외손자들의 재롱밧기에날가는줄을모르는중이라 합니다

◇

공명선씨의 망내따님이라는천긔진주현씨의부인 성성현(成聖鉉)녀사가애교가득한태도로 자긔어머님을대신하야긔자를마즈며 긔자의뭇는말파그마나님의대답하는말을 련송던달하여줍니다 그두분마나님은지금으로부터 륙십년전륙력십이월십팔일에 전남에도유명한남원(南原)영에서 당시에서슬이푸르던량반박균옥 (朴均玉)씨의따님으로 세상에태여낫더람니다

◇

그후두분은 고히고히자라나다가 열여덟살때에 형사시회씨는 그곳리순명(李順明)이라는사람에게로출가를하시고 뒤밋처 아오공명선씨도그곳성재환(成載桓)씨댁에 출가를하시서 사이조흔쌍동형뎨분도 할수업시서로헤여저서 살게되엿섯는데 불행히사시회씨는그가섭혼일곱살되든해에 그남편이삼십구세를일기로 청춘의세상을떠나 청태한번못해본채 졂은과부가되엿고 공명선씨는 지금으로부터 칠년전에그남편이세상을떠나 지금은두분마나님이똑가튼과부의신세로 늙어가는중이라합니다

◇

공명선씨는천긔딸하나를곱옥가치길러지금으로부터 사년전그가경성녀자고등보통학교(京城女高普)를졸업하자즉시천긔진주현씨와 부부를매저주어화촉의청년을일우으고 지금은그따님의집에다 여생을의탁하고지내는중이오 사시회씨는거금십륙년전부터 외로운신세를그동생공명선씨에게 의탁하고살어오다가 동생이딸의집에서여생을지내게됨을따라 그역시그집에가치잇게된것이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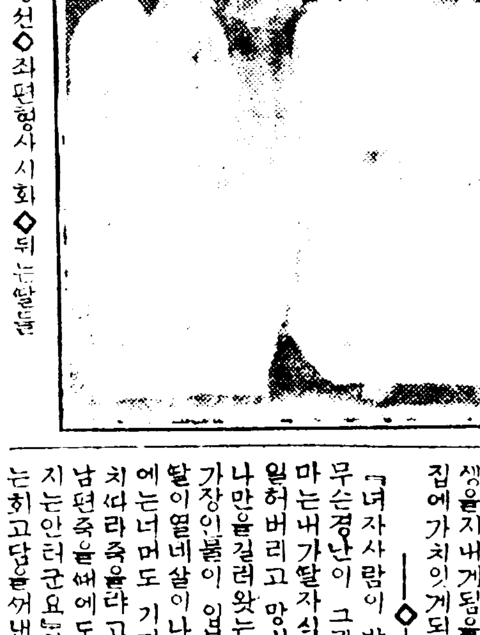
◇

『녀자사람이 밧겻세상일에야무슨경난이 그리만헛겟습닛가마는내가딸자식일곱을나서다일허버리고 망내되는성현이하나만을길러왓는데 그딸중에도가장인붐이 입부고잘낫던동째딸이열네살이나되여서 죽을때에는너머도 기가막혀서나도가치따라죽을랴고 하엿섯습니다남편죽을때에도 그와가치슯프지는안터군요』하고공명선녀사는회고담을서낸다

『내가세상에서 데일깁븐일을본때는지금으로부터 십륙년전내도라가신가군(家君)이 『관인관』으로새허서당시여섯살먹은 성현이를다리고 남원서서울로가기수를다니다가조사국이 해산된뒤에는필운동(弼雲洞)한방약국을 보앗섯지요……』하고그는말끗을맷는다

◇

인하야 천긔진주현씨는전북임실군(任實郡)읍내부호 진재황(晉在璜)씨의맛아들로 방금경성의학전문학교(醫專) 사학년에재학중인 당년이십오세의유망한청년이오 그안해성성현녀사는방년이십이세의 현숙한지식게급의부인으로 그사이일남일녀가잇는데 긴귀번디에커다란주택을 사가지고아모것하나부자유한업시 중류이상의부유한생활을하고 잇는평화단란한가뎡입니다 공명선씨는그남편의유산이 다소간잇섯다 하나불행한자들에게 속아모다 앗기엇다는말도잇습니다



◇우편동생공명선◇좌편형사시회◇뒤는딸들

安邊에怪青年

富豪집襲擊

전후두집에나타난청년이 유부호에서는이만원강청 金富豪는拳銃까지發射

지난십이월이십六일안변군서곡면하남리(安邊郡瑞谷面下南里)부호유명재(兪明載)의집에수상한청년이 나타나 주인이업슴으로 그집부인을칭하야 몃칠후에 돌러이나 현금이만원을 준비하야두라고 부탁하고 가바렷스며 그다음날 이십칠일 오후일곱시경에또 안도면비산리(安道面比山里)부호김창준(金昌濬)의 집에도 수상한청년이 나타나 그집일군다려 주인잇는것을 차저달라고하는때에 긘긔 김창준은발서그긔맥을알고 안방에 드러가권총(拳銃)을발사한결과 그청년은어대로몸을피하여 바리고말엇다더라(안변)

長野縣事件은 三日頃에公判

일본당야(長野)경찰서폐지문뎨에관하야지사(知事)와경찰부당(警察部長)등을난타한당야소요(騷擾)사건의피고일백사십삼명은거간예심이 종결되엿슴으로래삼일이일에당야재판소에서데일회공판이열니리라더라(동경뎐보)

病든男便두고 深夜에婦女投身

─生活難病苦에쪼들린犧牲者─

─병든남편병어린자식을살리다 남편의폐병이감염되이자살해─

평남중화군양정면고잔리(平南中和郡楊井面古棧里)림정식(林正植)의처김씨(金氏)(四二)는 지난일일오후열한시반경에자긔집압 양정교(楊井橋)에서 떠러저자살을하여버리엿다는데 그원인은 긘긔김씨의 남편림정식은오래부터 폐병에걸니여 아즉도자리에서 일지못하야 그동안녀자의몸으로 가지각색의 버리를다하야 두사이에서나흔 열두살되는귀먹어리 맛아들과 여섯살되는둘째어린자식들을 버려먹이는이상병든 남편을 봉양하기에 골몰하여오든중 긘긔김씨도 불행히얼마전부터 남편의 폐병의 감염이되여 다시는 엇쥐수가업는 최후궁경에 달하야 마츰내괴로운세상을잇고저병든남편과어린자식들을남겨두고그와가치자살을한것이라는데 권긔양정교아래에는 조수가 들락날락하는곳임으로 그의시톄도 아즉찻지못하엿다더라(평양)

美監理教會 遺族에同情

별항 애닯은사건에대하야 동디예수교미감리교회에서는죽은이로 장례를 지내려니와아즉사라잇는 불상한 친족들을위하야 눈물석긴 동정금십원을거두어 그들의 연명을하게하는중이다(평양)

金海에惡夫婦 老母를投江코저

─늙은모친을차고불어논후에는 강에집어너흐려다그만도망해─

哀號痛哭으로洞民이制止

김해군가락면 상덕리(金海郡駕洛面上德里) 김원백 (金元伯)(五三)은지난이월삼일밤에 친모되는배성녀(裵姓女)(六三)와말다툼을한끗헤 자긔처와 협력하야 친모배성녀의 머리채를잡고 발로차고 그의처는팔과다리를 붓고뜨더긔절케한후 살고나가 집압강물에넛코저할때배성녀는사람살려라고 소리를 칫든바동네사람이달녀가서 원백에게 불효됨을질책하는동시에 맘싸지 빼리고 배성녀를 구원하엿는데칠십로인으로 몸에놀날만한 상처를입어지금신음중이고 그동리에서는 축출시키기로 결의하는중이라더라(김해)

愛妻를목찔러

가뎡불화로

황해도겸이포욱뎡(兼二浦旭町)삼십삼번디리승묵(李承默)(三一)은지난일일 오후다섯시경에 자긔처황보무던(皇甫無典)(一九)의 목을베히고 즉시그곳 경찰서에 자수하엿다는데 리승묵은 지금으로부터 오년전에 황보무던과결혼하야 오늘까지 로동을 하여간신한살님을하여오던중부부간의불화로 항상가뎡의 풍파가끈치지 아니하던바 작년십일월경에 그처황보무던이가 황주군도치면가와리(黃州郡都峙面加瓦里)팔백번디 자긔친가에단녀오겟다고 갓다가 한달이넘은후지난십이월 삼십일에야 자긔친부황보대현(皇甫大鉉)과가치 도라왓는데너무늣게왓다고싸홈을하다 도로본가로가라하야 황보무던은 지난일일에 자긔친부를따라다시 본가로가는데 리승묵은장천리역(長川里驛)까지따라가서 그처를다려다노코 술을취하도록먹은후 다른 가족들이밧그로나간사이에엇더케하엿든지별안간황보무던이가문밧그로뛰여나오며 피를흘니고 걱구러짐으로 가족과근처사람들이 급히구원하며 읍변경관과 의사가 출장하여 응급치료를 하엿는데 목에약한치가량을칼로찔른것인데리승묵은 즉시경찰서로 인치하엿다더라

사랑이원수돈도원수

돈에속아시집가니

세상에 나가치된사람도 하나요듬이아니리다 나의가뎡은빈한하되 부모의덕택으로 고등보통학교를졸업하고나서 싀집가기를원하엿더니 문벌잇고똑똑한사람은 나를도라다보는데도아니하야 간난한부모의권유로 결국싀골부자 어느사람에게말로는본처로간다하엿스나가서보니본처가잇고자식이형네나잇서한번버린몸을어이할수업시 삼남매를낫케되엿다 아모리호사를하고호강을하여도 남의첩이라는비평을 면치못하고잇스니 남보기가여하하고 나는괴위그만두고라도 나의소생삼남매가 다사생자라는두겁을쓰게되엿스니 그아히들의 평생을내가그릇치주엇다 한만은일생을 다살랴면아직도 살어야할것이아닌가이것도 돈으로생긴원수! (京城 ○○子)

유부녀에정든것이

나는 불의의사랑을하엿다 나의신분이 무엇이지모르고열정에몰리여 다른사람의처와 사랑을하게되엿다 하로잇틀날자가 김허갈수록 그도정신을못차리고 나도정신을놀랏다 그러다가 맨인가불행이가 이관계를 세상사람이 알게되엿섯다할일업시 그와나와는 서로떠러지게되엿스나 오늘도 나는 그를생각하는마음은업서지지안는다 의리와사랑이라는것은 서로교섭이 업는모양이다 나도후회는한다 그러나 후회와사랑과는비교할수업는 덩도에잇다 (東部生K O R)

올케를二處轉賣

【錦山邑內에稀世의魔女】

몸가ㅂ슨일금사십원으로

전북금산군 읍내상옥리(全北錦山郡邑內上玉里) 림무술 (林茂述)의처 최성녀(崔姓女)(三三)는 대정십오년 음삼월에 자긔친정에단이러가서 자긔 올케되는심봉선(沈鳳仙)(二?)이란녀자를다리고 자긔시가로가 동군읍내사장에서 음식업하는림대성(林大成)에게사십원을 밧고팔어먹엇는데 얼마되지아니하야 피차살수가 업슴으로 다시최성녀의 시아재되는림태바오(林太岩)에게다시 팔어먹엇다가역시 가뎡불화로 살지를 못하게됨으로 동군읍내중도리(邑內中島里)뎡시동(鄭時童)에게또다시사십원에 팔어먹엇는데 뎡시동은 최성녀에게 사십원을 도로내라고 고소하는중이라더라(금산)

老人轢死

갈마역에서

지난이일경원선갈마역(京元線葛麻驛)에서 경성행데일백이호렬차가 출발할야할째에 친구를 송별하려고 객차승강대에 올으자차가떠남으로 급히나리려하다가 고만치여죽은사람이 잇섯다는데 그사람은 원산부중리동(元山中里洞)이십구번디홍준성(洪俊成)(五?)이라는로인이라더라(원산)

獵犬이放銃

주인을마쳐

지난일월사일에 평남강동군 만달면승호리 (江東郡晩達面勝湖里)공립보통학교교당 등천(藤川)이라는사람은 산양총을가지고 개한머리를 다리고 산양을갓다가자긔총에 중상을당 하엿다는데 권긔등천이가 불오리를쏘려고총을재약한대로거려가든중에따라갓든산양개가 압흐로 다려나면서총뒤쐴이를 밀치여 총알은 등천이달이에 부드치자 방아쇠가되치면서 달이에부참이도 총밤이들어백여 촌보를 옴기지못하여교군을 타고도라가 치료하는중이라더라(승호리)

汽車와衝突

青年一名粉骨碎身

처참한현장에검사가출동 新年劈頭에力浦驛慘事

대동군 룡연면향목리(大同郡龍淵面香木里) 김치연(金致淵)(三〇)은삼일오후일시사십오분력포역(力浦驛)서편약일마일의디뎜에서 다라나는북행렬차와 충돌되여 전신이바사저 그만죽어버리엿다는데 그원인에 대하여 아즉불명임으로사일오전열한시경에검사와서긔가동디를향하야 출장하엿다더라(평양)

驛夫慘死

대구역련결수

사일오전아홉시삼십분경에대구역구내에서 화물차미려가든 인부중의한명이 무참히 밧치어죽엇다는데 죽은인부는 대구부내신뎡(新町)김성양(金聖良)(四一)으로일본인관(管)운송부에서일하는인부인바 다른인부와 한께화물차를 련결식히려고 밀고가는데 련결을하려 상대방에서진행해오든긔관차가회차의뒤에인부들이밀고오는것을모르고압헤사람이 서지안은것만보고 힘차게련결식히는바람에다른인부들은 속히피신하야 무사하고김성량만은 인부들한가운데서 드러서밀다가 그만긔차의 련결에 질여가업서 그만긔신이 산산히갈리고 밧치고하야 무참한 죽엄이되엿다는데 이에그과실이 긔관차를 운뎐한운뎐수의과실이라하야대구서에서는 목하관게자를 취조하는중이라더라(대구)

高麗革命黨員

長春에서被捉

선전원리동락

본적을황해도평산(黃海道平山)에두고 현재길림성(吉林省) 리동락(李東洛)(二?)은지난십이월이십팔일에 당춘거당 동아정미소(長春驛東亞精米所)에서당춘경찰서원의손에데포되야국비밀리에서 엄중한 취조를밧는중이라는데 그는 본래 텬도교신자로만주에 잇는교회시찰로 금년이월분에 만주에 건너가서흥경(興京)서고려혁명당을조직하고동당 간부로선전 위원에임명되야길림모 방면에본당을 두고그간활동하다가 이번에 합이빈방면으로가려다 그만 잡힌것인데동시에 고려혁명당 취지서당원명부회의록 내외각단데 상항보고각단데에 내왕서찰 선전문회명당인장등을 전부 압수당하엿다더라(당춘)

閔泳綺氏死去

뚜드러진래력대개

리왕직 당관민영긔(閔泳綺)(七三)씨는작오일 오전아홉시경뇌일혈(腦溢血)로사거하엿는데씨는소년시에 무과에등과하야 남양부사(南陽府使)경무사군부협판오조약 톄결당시의박제순(朴齊純)내각의탁지부 대신등을경력하고 동양척식회사 부총재로도잇섯다가 리왕직 당관으로도려가금일에 이르럿는데 광무년간에는보부상(褓負商)을지휘하야독립협회를 대항한것이 경력중에현저한것이라더라

◇휴지통

▲요사이에평강(平康)디방에서는 쑤어노흔메주에서 사람의머리털이 난다고 ▲일반이 수군거린다나 거짓말하는놈이 참말하는체하고 빼스면서도 안빼는체하는놈이 갓득이나 찬세상이냇가 ▲메주도 사람노릇을하랴는 모양이야 ▲지난달삼십일일오전에원산당거장 렬차속에서 중절모자쓴 청세미남자가 잇는것을보고 ▲경관도 군이되여 조사를한결과 원산일락루(一樂樓)창긔가 비장도망하든것이라고

◆天氣豫報◆

昨日正午 [illegible]
再昨日最低 [illegible]
昨年此日正午 [illegible]

우리國産同胞衣次

二千萬民衆의無比福音!

製織元 京城 東洋染織株式會社

◀特約大賣捌店大募集▶

東洋木

◀全國到處布木店販賣▶

總發賣元 京城 興一社

半島織物界의一大革命!

幅 壹尺九寸五分 長 拾貳尺 二十尺 白色 黑色 深灰 淺灰

商標登錄出願中

萬世 만세

신무고긴질

萬世고무

京城府中林洞 萬世고무工業所 (電話本局二九八番)

大好評·新年號

朝鮮서는처음보게되는大規模의

새해생각할일……各界名士
새해브터실행할일……各界名人
새해正月日記……申○○
새해희망신……朴○成
算術잘하는法……白南奎

正月노리말판 附錄

어린이讀本……方定煥
『少年特使』……馬海松
印度의이야기……高漢承
룩기의지혜……崔瑨淳
新年用滿劇……鄭寅燮
千里眼博士……丁炳基
東京의朝鮮兒……孫晉泰

색동會선물

新年大懸賞 세가지

아모나상탈수잇습니다 당신도얼른타가즈시요

獨逸少年이약이……鄭順哲
佛國少年이약이……李○○
각국의正月노리……延星欽
새해운수보기……

◇冊갑은 그래도 단十五錢 京城開闢社

一錢자리郵票十五枚만보내면 其他아홉가지新記事가갓득 즉시 冊과신묘과 말판세가지보냄니다

어린이

朝鮮第一 今日發行

資本金六百萬圓 設立明治三十八年

株式會社 漢城銀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頭取 韓相龍

電話光化門長七六〇番 振替口座京城二一〇五番

支店 南大門、東大門、西大門、水原、平壤、大和町、本町、開城、東京、釜山、大阪

土金石金銀買入

京城明治町 德力出張所

地方支部長採用 年齡二十五歲以上五十歲以下

當所直屬外務社員採用 年齡三十歲以上者

勸業債券月報社朝鮮事務所

平壤府櫻町九九番地 電話平壤一三七八番

本社 京城

坂井醫院 入院隨意

院長醫學士 坂井清

診察時間 午前九時至午後三時

團成社 電話光一九五九番

國際時報 全一卷

特別豫告

六〇六號 一號 四圓

柴崎仁壽堂

地獄極樂

漂泊의人 全六卷

電光의로맨스 全五卷

朝鮮劇場 電光二〇五〇番

家庭改良에 關한意見(六)

◇府內峴底洞 金龍培◇

婦人欄懸賞當選文 其一

五、오락에관한일

◇가족뎍위안의필요◇

피곤한정신을 휴양하는 데는 잠을자는 외에연극 구경이며활동사진구경이며 유아이며「연」쓰」가튼여러가지 오락이필요합니다 글시와그림과 화초재배가튼데취미를 부치는것도 필요합니다 이와가치오락과 취미는정신을휴양하는때 필요할뿐 아니라부지 불식간에 사람의품성을수양하는조흔도움도됩니다

그런데 우리의가뎡에는 이와가튼오락과 취미가 부실합니다며구나된가족이함께단란(團欒)하는그것은 아조업다해도 과언이아닙니다 우리의습관으로 려염집부인이연극이나 활동 사진에가는것은 괴상한일로 압니다그래서외국인 모양으로된 가족이단란하야 연극이나 활동을보고즐길수업습니다 혹시 부인네가가게되면 부인네서리만 따로갑니다 극장에도 가족석외설비가업습니다 외국인의 가뎡과우리의가뎡을비교하면 우리의 그것은너무도 무미하게 지냅니다이제부터의 신녀성은 되도록가족뎍단란의긔회를 만히 만들어서가뎡을 며욱자미잇게 며욱질겁게합시다 그러하면 여러분의두통어른——남편이요부(妖婦)에게빠저서주사청루(酒肆靑樓)에서저창천작(低唱淺酌)을유일의위안으로아는병폐를고치게되리다

六、표제에관한일

◇사랑을남녀공동으로◇

사랑은손을대접하는 응접실입니다 그런데부인의 내외하는습관으로 이써까지는남자 만이사용해왓습니다 부인손님은 침실인안방에서 대접합니다 침실을 응접실로 쓰게되니 주객이모다 불편합니다 이제부터의 새사람들은내외가업스니 사랑을 남녀함께쓰는응접실로할것입니다

◇「엿주어라」를업새옵시다◇

신교육을 아니바든 구식부인일지라도 손이차즐때에(안계시다 엿주어라)하는 알미운말버는그만둡시다 그리고사랑 심부름하는상로 아범머신에 딸이나아들을식입시다 그러면경제가 될뿐아니라 어린이들의 언어동작을보고배우니 문견이넓어지고 예법에익어저서 부지불식간에 훌륭한가뎡교육의도움이됩니다

七、례식에관한일

◇제사를전폐합시다◇

삼년동안 조석 상식밧들기며 일년에 보통칠팔차나되는 제사를밧들기는 참말로 용이한 일이아닙니다 원래반경을 고여서상식을 올리고 제물을 고여서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偶像崇拜)에서나온제도입니다 이밧분세상에 이와가치무의미한일에다가 시간과금전과 로력을랑비하는것은 진실로 허된일이라하겟습니다 여긔에 허비하는시간과 금전과 로력을갓다가 현재살어잇는가족에게 즉접유조한곳에 쓰는편이 얼마나며 더하예서 자손의행복을 빌어주시는 렬조의본의를 봉답하는도리가되오릿가 돌아가신날에는 온가족이 한집안에모혀서 도라가신어른의 사진을 내여모시고 경건한마음으로 생전의 사적을추억하야서 추도의정의를 표하는것이 눈물도 아니나는것을노래삼아 우는것보담 얼마나더욱정성스럽겟습닛가

◇상복과긔한을줄입시다◇

먼저말한 흰옷을 폐지하자는취지로서 만일년내지 이년동안입는상복을 줄곳빼서지로 즉갓것을버슬때까지로 단축하면 조흘가합니다 흰옷외에 모자신발까지도 흰것을채렴하기가 어려운우리의살림에 곤난이아닌것가

이상에 우리의가뎡개량에 관한우견을 대강진술햇습니다 이외에도 적엇스면 조흘것이한두가지가아니나 한뎡된 지면이라 이만어를수밧게업는것을유감으로생각합니다 바라건데 독자여러분은 이밧게도 여러가지개량할뎜을연구하야서 여러분의 가뎡을리상뎍으로 개량해서 영위에 세우게하소서 마지막한마되엿줄것은 백가지공론이 한가지실행만못한다「하는 격언입니다

(끗)

가뎡고문

●●●흠은뎜이잇서요●●●

(문) 출생할때부터이마에흠은뎜이잇는바고 멀허잇서보기에흉하오니 엇지하면낫겟습니까 자세히가르켜주심을 원하옵나니다(대구알고십흔생)

(답) 선천뎍으로생긴흉뎜은약을발너업시할수는업다고 합니다써져은것이면 해혀볼수가잇스나 그자리에 흉이집니다

●●●눈동자의흰위을셀수업슬가요●●●

(문) 저는이십세된녀자인데어려서눈을압엇다는데 한눈에는하얀백래로 눈동자를가린까닭에그눈으로는 보지도못할뿐더러 남보기에도퍽흉해서항상근심이오니 좀곳칠도리가업습닛가 눈은다말간데다만 눈동자에힌점이잇서서안보입니다 (답답생)

(답) 정도여하에따라글거내고 꼿치는수도잇습니다 그러나그것은 썩 능란한안과전문(眼科專門)의사의진단을밧어야 합니다(긔자)

●●●일본인과혼인하여도조흘가요●●●

(문) 저는십구세된처녀임니다 고국나디에서 중학정도의학업을맛치고 일본으로건너온지벌서일년이 넘엇는데일본엇던청년과 서로떠나지못할련애관계가 생겻습니다 그러나 저량심에는 만흔가책이생깁니다 조선녀자로 일본청년과 혼인할수잇슬가 그래도조선에서욕하지아니할가 이것이근심이오거졍입니다 엇지하면조흘가요 종잘가르처주십시요 (일본에서한생)

(답) 련애에는 국경이업다고하지마는 일본과조선과는특수한 관계에잇기때문에일반조선사람은 일본인과의혼인을조치안케봅니다 당신도량심에가책이잇다하오니 굿게단렴하고아니하시는것이 조흘것갓습니다

諸劇 薯童(二) (一幕三場)

李殷相

百濟諸王時代 檀紀二九三三年頃

아희들십여명이뛰여들어온다

(서동)
「어으님분도령님들 참만히왓군 자다들 떠들지말고가만히잇소 자이리로 쭉—늘어서오 내할말이잇스니」

(아희甲)
「쭉—서긴 왜마만주면그만이지 할말은무슨할말이야」

(서동)
「아 그도령님참똑똑히구시네 가만히잇소」

(아희甲)——돈을쓰어내며
「자잔소리말고 두푼어치만주」

(서동)
「안이 돈업서도조흐니 가만히서서내말이나듯소」
——마등을압헤 들어다노코 아희들을 나란히세운다——
「돈도안밧고 이마를다갈라줄터인데 내가도령님들께 할말잇소 이말을들어야주지 안그러면안주오」

(아희甲)
「안이그러지말고 한개식울면커주 그러면듯지」
——아희들 엽흘늣는다——

(서동)
「하하하(우스며)그래 자한개식드려지」
——한개식갈라준다
「그런데 먹으면안되오내말다듯고먹어야지 응」

(아희두엇)——뒤로다러나며
「난그것만먹고 말테야」 퇴장

(서동)
「하하하(우스며) 가면안돼내말만드르면 열개식줄 테이니 가만히서잇소」

(아희甲)
「사람간다 죽겟네 말이나어서하고 마나주—」

(서동)
「그래그래 다른말이아니라내가지금 노래를하나 할테니드르란말이오 무슨노랜고하니 아주썩 재미잇는노래요」

(아희들)
「노래나해보」

(서동)
「그래 드러보」
「원성이라 신라서울
궁궐안에 선화공주
밤이면 마장사가
동에업고 다라나네」
「듯기조치?」

(아희甲)
「그참 재미잇군」

(아희甲)
「자 마나주」

(서동)
「그래인제 마를줄텐데이노래를다가치부르기만하면이마를죄다갈라주고 그러치 안으면안주어」

(아희들)
「우리는 그노래를모르는데어떠케해」

(서동)
「어으 그야내가가르켜주지」

(아희들)
「그래 가르커주」

(서동)
「자 그럼내가한줄할테니 따라하오」
「원성이라 신라서울」
「자 다갓치해」

(아희들)——다갓치——
「원성이라 신라서울」
(두서번더부른다)

(서동)
「앗다 이도련님 앗게는남보고 욕을하시더니 인제는남보다모뎌와서 마달라시네 에이 이런도밧버서야 어데 마장사노릇해먹겟소 자 가만잇소 아희들이와야 드리지 다오거던…… 응」

(아희甲)
「앗다 좋잇다주나 지금주나 한번주기는 일반인데야 그러케 버릴것잇서?」

(서동)
「참 그도련님성질도급하시다 그러지말고 동무들이나 다모하보오 몃분이나되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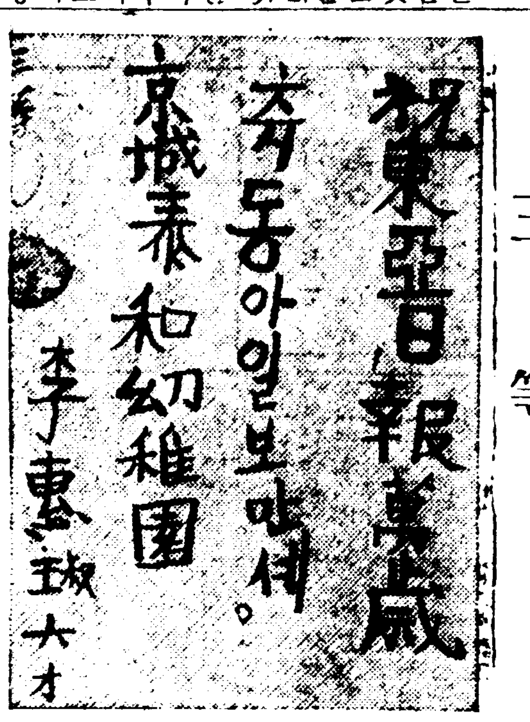
(아희甲)
「지금 저리만히온다는데……」
——방굴내다보며——
「야—— 어서와(손시질치며)
「어서와 마준대 뛰여와어서」

(서동)——방굴보며——
「그래 참만히들오는군」

(아희甲)
「그러기보아내가거즛말하나」
——아희들십여명뛰여들어온다——

(서동)
「어으 인분도련님들참만히왓군자다」

三等



○초생달

詩歌三等 慶北尙州公普六年生 李文鎬(一三)

웃의두른초생달님 어엿분지고
엷고맑은우리누님 눈초리가치
날보고방긋웃으스며
어제저녁에
심어노은 계수나무
내일모려면
가지벋고꼿핀다고
자랑하여요

부인시사업속

김부인의특지

경북상주군초뎐면 동창학원(慶北尙州郡草田面東昌學院)에서수년전부터 의무로교편을 잡고잇는 권중선(權中善)씨의 자당김씨부인은 동학원에현금 백원을긔부하엿다고 합니다 (상주)

월간잡지 부녀세계창간

리희용(李熙用)씨외오이구(吳理九)씨의발긔로 월간잡지 부녀세계(婦女世界)를발간하기로하엿다는데 사무소를 시내견지동(堅志洞)사십 번디에두고 방금창간호준비에분망중이라고합니다

김씨의효성

충북보은군속리면구병리(忠北報恩郡俗離面九屛里)하응순(河應順)(六三)의자부김씨(三二)는 이십일세에과부가된후 이래십여년동안을 하로가치홀시아버님을 정성으로보양하여내려오든바 근일에이르러는그시부가정신에 이상이생기여떠돌고 다님으로김씨는 잠시도시부의 겻흘떠나지아니하고 따려다닌다고합니다 원래가세가빈한하여 조석을 동래로엇어다가시부를대접하는김씨의 효행을일반은감동하여 칭송이자자하다고 합니다(보은)

朝鮮現代 文藝槪觀(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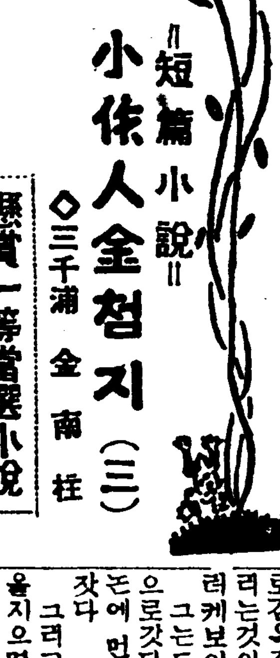
◇咸南咸興郡金聲近◇

文藝欄懸賞當選文 其一

◇우에잇서나는 新文藝의歷史가비롯된지十數年에文壇은그동안의가진混沌과 經濟的其他社會環境의모든 壓迫에서새로운健實한첫거름을내여노흐려는轉機에際會하엿다는것을 最近의傾向으로미루어指摘하고또그우에이것이『朝鮮』을찻게되엿다는點에서新文藝의 曙光期가到來하고잇다는것까지도말한듯하다 나는여게서이말을다시풀고십다 왼文壇을向하여『朝鮮에도라오라』고다시한번나로써웨치고십다 그것이어듸까지『朝鮮』의文藝인以上全人類에對한義務보담도 朝鮮民族에對한義務가몬저할것이다 어듸까지몬저그것이朝鮮的個性과 獨創이잇서야겟다 朝鮮에는남보다떤現實이잇고또그로부터 오는理想이잇다 朝鮮의울음을가치울고朝鮮의깃붐을가치웃고 그의理想을가치熱望하는 사람이아니고는 朝鮮의文學을建設할價値가업다고 나는斷言한다(이것을世界와沒交涉하란말로誤解해서는안된다)

◇다음나는우에잇서도말한배잇거니와여게서다시所謂『프로레타리아』文藝를向하여한마듸하고십다그것은朝鮮의오날프로文藝가그根本的으로 그本質에變動을주지안코는 今後의進展이疑問이란것이다 아니朝鮮에잇서永永그存在의意義를喪失할는지도모르겟다 다음은그階級이다 이써저지의取하여온그態度는確實히그正路를밟지못햇다 人類의全部가아니朝鮮의全部가階級的對立은一日理가업다 그곳에는그보다더以上의또는그보다못지안은만흔것이잇다 그럼으로그것이文藝의一隅에存在할理由는잇슬는지모르나 全文藝를支配할수잇슬가는疑問이다 나는적어도現代에잇서人類로하여끔(좁게말하면朝鮮) 좀더幸福되게하려는 努力에잇서는그것이愛國文學이건農民文學이건戀愛文學이건勞働文學이건 더한種類의文學을勿論하고 排斥할것이안인줄안다

◇또今文壇을向하여바라는것은몬저朝鮮의理解함과 함께그全部라고도할만한農民을알려함니다 이農民文學建設은벌서文壇의一部에서始作되엿는듯도하나여게서다시말하는바다 非實우리가만일朝鮮을움직이고그곳에힘과光明을주려면우리는그農民을이즐수업다 以上은나의希望과意見의二三을 이機會에말하엿슴에지나지못한다 文壇은沈滯를말한다 갑갑한呼吸을繼續하고잇다 그러나그것은明日의힘잇는아름다운文藝를나으려는産母의苦痛이며또그깃붐이다(끗)



『短篇小說』 小作人金첨지(三)

◇三千浦 金南柱

懸賞一等當選小說

참새가두어마리 짹짹 울면서 그의 머리우로 날너지나간다 그는 이소리에 놀낫다 숨을새인듯하엿다 눈을들어 바라보니 그들은 일을다맛첫는지 커다란길거리로 슬금슬금 나간다 『김첨지』는닐어섯다 가만가만——

그러나빨니걸어서그의논에가보앗다 그는사면을 뚜렷시살펴보앗다、아아거긔는 무서운것이잇섯다

억임업시잇섯다 벼논 한편구석에、집행이를 하나세워노코거긔다가 새빨간도장을 직은조희를달아노앗섯다 그의가슴은 쇠여질듯키얄미엇다

이벼가 논에서잇슬 동안은그라도 제것으로알엇다

추수하기전에는 제것 이라고미더왓섯다 그것이 오늘은제것 이라는 생각도업서젓다 그러케되엿이젓다 그는논두덕 에서엉을두드리고울엇다

어이어이 목을노아 울엇다사람업는빈들에 그의소리가 바람을따라자긔의귀에들어왓다

나희사십이넘은 자긔의 이꼴을그는 스사로생각 하니하도어니가업서서그만허허웃엇다

그러나 어이웃고 마칠일이리요 그들을보고 항거하지 못한것이인제야 후회가낫다 만은그는약하엿다

한참동안 그조희를 들어다보고잇다가 손을내밀엇다 그나무를배엿다살금빠진다

——이것을 집에로 가지고가서불에태워버릴까——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두려운일이엇다

그는 조희뭇은그나무를 도루쇼자두엇다 한숨을길게 쉬엿다 너무도원통하엿다 눈물이 또흘는다

그의머리에 엄푼한가지 생각이 떠올랏다

그는다시 나무를빼엿다 그것을 두어논人자리지나서 엇던논구석에다가 쇼자두엇다 아지못할우슴이 그의얼굴에나타난다

그는닐어낫다 집으로 도라오라는것이다 그논은돈을쓴「최서방」이짓는논이다 그러나원홍은 그의형의것이다『김첨지』는늘생각해온것이다 집행을 하여가면그논을 할것이라생각하엿다

그러나 그는여러사람에게 법이라는말을 들엇다『최서방』의원홍에잇지안는것을하지못한다는것을알엇다 그는 힘업시그나무를 다시빼앗다 그래도원통하엿다 다시그는 힘대로버던지듯키 그나무를쇼자두고 압길만나려보고 제집으로 도망질을하여왓다 자긔집문人간에 발을놋차 그는숨을쉬엿다 숨을쉬고 생각하니 지금의해논일이 너무도무서웟다

경찰서、순사、칼、류치장、쇠사슬、자동차、콩밥

이모든것이 서로얼키여 눈압헤왓다가갓다가한다 제집이바로감옥갓햇다 아들놈이 얼넝거리는것이 순사와흡팁이엇다 그러케보이엇다

그는도로집을나섯다 번쳠논으로갓다 나무를빼여서 도로제논에 번쳐잇든자리에 그대로쇼잣다

그러고 한숨을길게쉬고 눈물을지오면서 무거운발을옴겨 터덕터덕거러면서 집으로 도라오는길이다 길거리에 무엇이흘너잇다 그것이『지갑』인것을 그는안다 조고만하게 가죽으로만든것이다 무엇이들엇는지 불룩하엿다 그는아모거리낌것업시 이것을주섯다 대담하게 되엿다

『앗가그놈들의것이로구나!』

懸賞當選詩 其二

어머니시여!

朴芽枝

어머니시여!
어린애기에게가르치소서
어린애기로하야곰惡한길을떠나게하오소서
어린애기의령혼은어머니의가르치심을기달이기에피곤하엿엇스며
어린애기의눈은어머니얼굴을차즈지오래엿습니다
아시는사람을애기에게가르치소서 사람이되려하는 마암의싹를가젓사오니
어린애기로 하여곰 사람의눈을뜨게하오소서
어린애기를 보실때와 갓흔인자하심을 가르치소서
어린애기로하여곰 누리의모든사람에게인자하게하옵소서
그리하야 누리의사람으로 하여곰인자하게하옵소서
× ×
어머니시여!
어린애기는 우슴을 차즈지오래엿슴니다
어린애기에게 우슴을 보여주십시오 다사한그우슴을 배우게하소서
어린애기로 하야곰 어머니가조와하시는 그노래를 부르게하소서
어린애기의生命을 새롭게할노래를부르게하오소서
그리하야 누리의 모든사람의생명을새롭게하오소서

우리는아이

金時容

가시덤불우를
다름박질하는
우리는아이
가시에찔리어
피가흘러쏘다저도
상관안하고
밝은봄을차즈려
캄캄한가시덤불을
헤매는
우리는아이

허생뎐

一、허생원의한탄 二、돌쇠를꿈너동행 三、돌쇠조와서날뛰다가로가납작 四、부인에게간다온다말업시

美容料 ゼニワポマード
美身料 ゼニワクリーム

ゼニワ石鹸

懸賞大募集

品質의가장優秀한石鹸으로定評잇는ゼニワ石鹸을愛用하시는各位에게謝恩의微衷을表키爲하야左記問題를懸賞하오니 第一의問題는實際에갓가운人數로부터 一等二等을定하고三等四等五等은抽籤에依하야當選者로하고賞品을贈呈하기로합니다

御愛用者 賞品

壹等 金壹百圓(復興債券)廿圓宛 五名
貳等 金壹百圓(復興債券)十圓宛 十名
參等 ゼニワクリーム中一打宛 二十名
四等 ゼニワ石鹸三個入一箱宛 五十名
五等 ゼニワ石鹸一個宛 二百名

懸賞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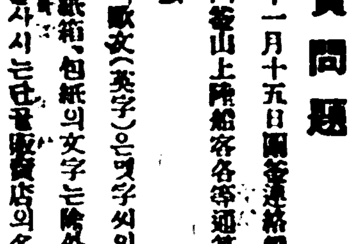
一、大正十六年一月十五日關釜連絡船으로朝鮮夕二回釜山上陸船客各等通算의總人員數
二、ゼニワ石鹸에歐文(英字)은몃字씩쓰여잇습닛가 但紙箱、包紙의文字는除外함
三、ゼニワ石鹸을사시는販賣店의名稱과住所

應募規定

紙面의答案은 左의式에依하야쓰

一、總人員數 ○○○名
二、歐文數 ○○○字
三、ゼニワ石鹸의販賣店의名稱과住所(町村名)
應募者 住所 氏名

答案은愛用者의便으로上圖와가튼ゼニワ石鹸의小函을퀴집어가지고白紙에上記의樣式과가치記入하시요



◎送法=開封으로二錢郵便切手를貼付하시요
◎答案=一人一枚限三問題共히明瞭히記入하시압
◎締切=答案의締切은大正十六年一月十三日到着分에限함
◎發表=當抽籤發表는大正十六年二月下旬

◆答案送先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一丁目 東亞化學研究所

販賣店優待

販賣店賞品

以上은愛用者各位의優待法이오나、愛用者로부터通知가잇는販賣店各位에게도그報告數의最高多數者로부터順次第一等을定하고同數의境遇는抽籤하야左記의賞品을贈呈하야感謝의微意를表하고자합니다

壹等 店用繁昌幟旗(옥스포드)一枚宛十名
貳等 店用繁昌幟旗(金巾製)一枚宛廿名

本店 京城

支店出張所
內地 東京、大阪、大阪西區、神戶、
朝鮮 釜山、大邱、仁川、平壤、鎭南浦、元山、群山、木浦、淸津、會寧
滿洲 大連、旅順、營口、遼陽、奉天、奉天新市街、鐵嶺、開原、長春、安東縣、龍井村、哈爾賓、傅家甸
支那 上海、靑島、天津
露領 浦潮斯德
米國 紐育
右外倫敦、巴里其他內外樞要地에爲替取引店이有함

朝鮮銀行
總裁 鈴木嶋吉

果樹苗木

豫約募集

開城池町五七三 安山農園

說明書 定價表無代進呈

●男女學生、商店銀行、會社事務家●
▼의大好評을밧음、忽然二十版發行▲

迅速正確 珠算과簿記法方

某大實業家의말에「아모리工夫를잘하엿슬지라도珠算이不足해서採用못하는일이許多하다」고、

가統學의餘暇가업서서珠算과簿記에通達하지못하는諸氏를爲하야一一히面對하야敎授한것과갓흔新考案獨特한圖解說明으로누구던지速히理解하도록苦心編纂한册으로萬人必讀의大寶典——內容은▲구구단지迅速確實히하는法▲加算法▲減算의妙은法秘方▲學者가어렵게너기는乘算▲除法의簡便한秘訣法▲四則應用問題로步合利息算▲暗算速算法을詳述하엿스며또▲누구던지速히理解하고速히記帳할수잇는個人▲商人▲會社▲銀行▲工業▲組合▲卸問屋其他各種簿記의記帳秘訣●一切網羅하엿슴으로本書만보면能率이올고事務을敏捷히할것을保證함。

珠算이不足하면活社會의敗者되야一生에損害될뿐아니라他人에受恥를밧게됩니다 ▲本書는十萬의優秀한卒業生을活社會에派送하야各方面에가장信用이만은東京主計學校

●菊判三百餘頁全部革리가나附挿畫百數十個入美册定價二圓을特價一圓五十錢 ▲後金은代金引換二十錢增送됨
●大特典 先着千名限 商店執務法을附錄으로無代進呈
●葉書로通知하면代引急送 東京市小石川表町六○ 振替東京六六○○番 進文館

ClibPDF - www.fastio.com

事業成功者列傳 (六)

七個星霜積功이 年收益千餘圓

헛짓한다고비웃음도바다가며 七個星霜努力이今日에는成功

鏡城 金泰允氏

果樹園成功

◇成北地方은純農地帶인만큼農事方面에至하야特殊한農鎭에도 他道에 자랑할만한點도 만타 其中에도 鏡城은 成北에잇서서果樹園의模範村이라고 稱하여왓다 現在四個所의果樹園中에 金泰允氏의經營인金城園이 가장오랜歷史를 가지고잇슬뿐더러 現今에잇서서도優良한成績을가지고잇다 이제 該園의 過去及現在의 狀況을紹介하면 元來金泰允氏는 少年時代부터 四十餘年間 農業에熱心從事하야온 篤實한老農으로特히園藝方面에집흔 研究를하여왓다

◇至今부터七年前 即一九二〇年에 試驗的으로七百餘坪되는 地面에 梨木과林檎두種을植樹하야 其後三年間은 肥料代、人夫賃이며 其外다른農作物을 不作한關係로作한 費用損害等을 合하야 五百餘圓의物質을犧牲하며 無限한努力을加하야왓다 그러고四年만에 비로소結實된 全收穫物을 無償으로隣地各方面에提供하야 不斷의努力이自己의힘을자랑하며 따라서 彼成되여가는 朝鮮人農業界에 果樹栽培가 將來에有望하다는것을 表示하엿다한다 其後부터年一百株 或은二百株式增植하여온 結果 今日에至하야는 總面積이五千餘坪에 林檎、梨兩種을 合하야 一千餘株의巨大한金城園을造成하엿다

◇一九二六年度에는全收穫高가 五萬餘斤에 純利가一千餘圓에 達한다고하는데 年年이增加되여왓다 產出된 果實의品質도 極히優良하야 一九二五年度에 開催된 成北果實品評會에서林檎 一等、梨二等의賞狀을受하엿고 一九二六年秋 三郡聯合物產品評會에도 亦是褒賞을受하엿스며 販賣區域은明川、淸津、茂山等地를爲始하야 멀리日本에外지輸出된다고한다 將來로더욱 擴大하야 全朝鮮唯一의模範果園을맨들어라는데 昨今三年間 概況의統計를 表示하면

年度	株數	面積	收穫高	純利
一九二四年	六七〇	四〇〇〇	三九〇〇〇	[illegible]
一九二五年	八五〇	四五〇〇	三七〇〇〇	[illegible]
一九二六年	一〇〇〇	五〇〇〇	五〇〇〇〇	一〇〇〇

苦는樂의種

◇비방도만햇습니다 金泰允氏談

내가金城園을經營하지가벌서 七個年이나 됩니다 그때에는 當地에 日人經營인 雉城園이 하나 잇섯슬뿐이엿지요 날날이 經濟의破產을 當하야가는 우리 朝鮮사람으로도 確乎한 自信과 엇던難關에도 百折不屈하는勇氣로써 不斷의努力만 다하면 어느程度까지는 비록 小資本으로라도 成功할이라는 信念을가지고 本來부터 내가 留意하야오던 果園을經營하야 볼가하는 計劃下에서 至今부터는 七年前에 이金城園經營에着手하엿습니다 始作當時에는 이웃사람들은 誹謗하고 家族들은非難하엿습니다 七百餘坪이나되는地面을 거저三四年間不農地로맨들고 게다가年年히消費되는 肥料代人夫賃等莫大한 金額의損害를보면서 果園을經營할必要가 무엇이냐고 批評이 만햇습니다 農業의永久性이缺乏한 우리朝鮮사람으로 當然한말이겟지오 그리고始作이나成功이라는말과갓치 엇제든始作을하고보니 成功한듯합니다 其後他人은 웃거니말거니 모든괴로움을무릅쓰고間斷업는物質의 犧牲과努力을다하야온結果에 今日과갓흔成功이라면 외람되지만은 何如間日後成功의基礎만 確實히어텃슴니다 苦는樂之種이라는말이果然名談인줄斗覺됩니다 將來大擴張을하야 이만하면朝鮮人의 產業機關으로는 外國人에게過히지지안을만큼하여볼 作定입니다

(寫眞=上은金城園과 剪枝하는 金氏泳君(金泰允氏子) 下는 金泰允氏

「成功者列傳投稿繼續受理(寫眞添付)」

◇投稿者◇ 鏡城 PRY

◇薄謝◇ 本報 購讀券 二個月分

勞夜에十圓寄附 槐山郡西部里金璣林女史는槐山青年夜學部의經營難을困難하야十圓을寄附하엿다더라(槐山)

巡廻探訪 —(一八八)—

昔時에繁榮地가 寂寞한農村

社會團體는絕跡

楊州 一記者 (2)

◇農業 은農家의副業이多하고專業으로하는者는 少數에至한바耕立枚數가三七四二枚에 總收穫이一五二〇石에 不過하다그러나製絲家가 百四十一戶가有하야 解絲가三八〇〇〇匁을產出하는바近年에 至하야專業家도稍出하야 將來에長足의希望이大有하다

◇家畜 은農業을本位로삼는故로牛馬豚을 飼養하는바牡牛가四九〇六頭요 牝牛가一四八八頭요馬가二〇五頭요豚이二五二七頭이요 雞는二三四二一首이데京城이 至近한關係로牛馬는冬閑期에는 貨物運搬에專用되야 所謂閑隙이 一日이라도無하며雞는 貿易商의出入이頻多하야 正確한 數字를表現키難하다

教育界

教育程度로말하면專門科高等科는京城이隣接한關係로施設한곳이無하고普通學校는八個所의二十七學級에男子가一五五〇名이요女子가二〇一名인바教員四四人이從事하며實業補習學校가 一個所에二學級으로 男子만二七名에不過하다私立 學校가三個所로學級이六이요男子만 一二七名이며敎員四人이 從事하면宗教學校가 一個所에學級의一이요男子가三五名이라 敎員二人이從事하며 其外에書堂八十二個가有한바 男子가九六九名 이요女子가三十四名이요 敎員이八十六名이라 하는바各學校中에六學年制로된 學校는郡政府에잇는楊州公普校 뿐이요其外全部가四學年制로되야 就學兒童의不便이 莫大하다한다以上公普校의所在地는 郡政府에는楊州公普 金谷里에는金谷公普蘆邑에는維楊公普 東九陵에는仁倉公普長峴里에는 長峴公普東豆川里에는 東豆川公普 紫沼里에는紫沼公普 磨石里에는磨石公普의八個所요 私立으로는長興面에一個所요瓦阜面에爲安松村兩里에各一個所가有하다昨年六月頃에廣積面 內有志人士白南容徐承復 李夏鎔金聲鎭諸氏의發起로該面內에 學校를設立코자公普期成會를 組織하고熱心勢力한結果 京鄕各處의發助를得하야 所期의額數에達한바敗地도大槪定하야 建築에着手할터이라하니 今春에는一大曙光이有하리라한다

宗教界

在來의朝鮮佛教는布教所가別無하고山間僻處에寺刹을建設하고淸淨의道로自修함에不過하엿스니寺刹數가 二十五個所에 僧尼의總合이二百餘名에 不過한바 至今도生活方面에 汲汲하야 求生이不瞻하니 布教에는餘暇가無한狀態로잇다

天主教는距今四十年頃에天主教가入하야 最初에陶器製造村落에布教되기始作하더니 漸次擴大되야 農村間에도信者가稍出하더니 只今은別로勢力이衰縮하는境遇에至한다 教會堂數가二十個所에 布教師가八人이有하고 信徒가七百八十餘名에達한다 以外에天道教神教等이若干有하나 微微不振하야布教堂과갓흔것도無하야 別로列擧할點이無하다

◇次回는義城◇

年齡制限問題로 新舊會員衝突

雙方의讓步로結局은解決

咸南新高山青年會第七回定期總會에서會員의年齡을滿三十歲로制限하엿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會現員은舊會員과一席에會合하야過去를回顧하는同時에未來의計劃에對한意見을互相交換코저去三十一日下午七時半부터同會館內에招待會를開催하엿든바舊會員으로부터『우리는招待會에招待를밧고온사람들이아닌즉이坐席은招待會로認定치안는다』宣言하고會員年齡制限問題에對하야强硬한質問이잇서理論의對峙가生하자舊會員數十名은一齊이되야襲擊的行動을取함으로場內는修羅場이되고空氣는極度로險惡하엿스나約一時後에平靜이되고即席에서兩方의讓步와諒解가잇섯스며本月二日下午八時半부터李容憒氏家에서新舊會員이議會를開催하고數時間和氣靄靄한가온데感想談과餘興이잇섯는데兩側會員은左記와如히말하엿다더라(新高山)

舊會員側談 青年運動에잇서서年齡을滿三十歲로制限한다는그原則을우리가否認함이아니라今般新高山青年會年齡制限은一種의驅逐運動가치되엿슴으로青年會員들이만첩이라도맨들어노흔우리로써엇지反感이업슬것소우리는新高山青年會의慣習한若板의習慣이엄기를自臣하엿고또우리는後進을爲하야옷까지後援하기를表明하며思想團體를組織하려하나時期尙早임으로地方改良類團體의新高山市興會를期成中이올시다

現會員側談 年齡制限은定期總會에서決議한것임으로法的行爲로보아서는조금치도脫線되지안엇고다못協議的이아니라함이問題이엿스나舊會員側에서充分히理解케되엿스니감은일이요우리는本來의使命을다할뿐이올시다

安心青年會 創立兼發會式

去十二月十九日午前十一時부터慶山郡安心面事務所에서安心青年會創立總會兼發會式이會長夏禹根氏司會下에서擧行되엿다는데出席會員이一百五十餘名中特히五十歲된會員도잇섯다하며會員尹一波氏의青年의覺醒과義務란演題로서講演이잇섯고其他來賓祝辭가잇슨後會館建築問題에들어가長時間討議한結果一般會員의義捐金이三百十八圓에達하엿스며無事히閉會하엿다더라(慶山)

慶南老會再會 釜山鎭教會에서

慶南老會가馬山서開催하든中牧師에對한行政問題로老會는修羅場化가되여結局解散되여延期하엿다함은逐次報道하엿거니와同老會의重要幹部會에서는問題의紛糾地를떠나來四日釜山鎭教會에서再次開催하기로決定하엿다는데牧師의權行事件에對하야馬山教會에서共同處理에慣慨한尹德伊는處理에不服하고老會에再次告訴提起를하엿슴으로裁判委員은頭痛거리라하며外에重要問題를討議한다함으로釜山社會團體에서도今番老會를注目한다더라(釜山)

產米組合紛糾

債務와損害가만히낫다고 組合員과幹部間에

安邊郡安道面產米改良組合에서는臨時總會를지난三十日午後二時同組合事務室에서組合長李炳宰氏의司會로開催되엿는데同席의會議는모다紛爭化되야同十時外지何等의落着을보지못하게되엿다는데同組合이當期設立된動機는產米改良을目的으로하야郡當局의勸誘와其時面長으로잇든李炳宰氏의發議로面內有力者二十餘名으로萬圓이라는資本으로로四百五十口에分하야(一口二十圓)組合員의不動產所有權을殖銀及金融組合에抵當하고現金間을五年年賦償還으로借入하야辦條三氏가所要한役員이되야伊來滿二年間精米事業을進行하야온것이意外로損害가萬餘圓에達케된바其間評議員決議를經由치아니하고起信한金七千餘圓과그에對該當한損害全部는組合員이負擔치아니하겟는것이問題가되야結局은損害全部를責任者三人으로專擔할터인즉此後의解決問題는組合機續事業과또는不動產所有權返還期間을五個年으로하야달라는組合長의意見에對하야組合員은우리는此後로利害問題는不關하고五年에土地만原狀으로回復하야주겟다는契約을하야주되相當한保證人을세워달라는것이結論이되고말앗다더라(安邊)

白頭山覲參 (七五)

崔南善

거룩하시萬化範

어려케장시禮讚을올리는동안에도天池의神秘한活動은 一刻도停止하는일이업다 一點의宿연기운이 水面에써올으기무섭게雄渾鮮明한神殿의光景 금시에쑴가치살아지고 一線의빗한괴운이 자옥한속에서옹기종이가무섭게밤이가고낫이와서一塊의混沌이 문득盛大한大聖容으로幻變한다 이러케환하게잡혓다가 이러케담담하게되기를되풀이하는사이에 한번은한번보담더 우람스러운늣김을용소슴하야온다 막히는것은天王이눈을감으심이오 터지는것은감으섯든눈을뜨심이며 급작스럽게막다티엿다함은 눈을엽폿삼작거리심인양하다 뜨실때에는天地가開闢하고 감으시면世界가閉闔되는것이 宇宙의有爲相과無常法을演說하는셈이다 白頭天池의이러케 눈한번식쑴적어릴때에 下界에서는엇더한風鑒이몃번이나 뒤번복되엿는지天地의生滅이란 본대부터白頭天王의一瞬目임에不過하는것을사람이란버러지들은 바로긴時間으로나가서 독접이씨름에며리악들을쓰고 그中에도與者라는옴지락이는 이것을또바로큰事變이나되여서 與妙한理致를알겟다하야 世世相傳하면서數表를삼인다함이우습다하자면 먹우수운일이다

開闢도開闢、나는이제宇宙의太原에서잇다 나는이제 造化의試驗所에들어와잇다 神의工場을구경한다。渾沌의秘閣에안자서 常活恒動의眞歷史를읽으며萬化無窮의大畜錄을 만지며至奧深秘의大詩篇을외온다。兩部六大의大緣起는바야흐로、여긔를運動場으로하야 猛烈을繼續하며日月燈、江海油、風雷鼓枝의天地間、乘戲場과 逸舞且文武末、莊操壯淨의古今許多脚色은 한참여긔를、스터듸오로하야 力演을進行한다。金剛山에서現象界의 萬物草란것을보앗든우리가 뜻밧게여긔와서그本體相인 萬化範이란것을본다超文字의活創世記가 연방冊張을넘긴다。活躍또活躍。轉換또轉換。

문득雪山의 仙人이貝多羅의梵策을맛들어나오니 보매梨俱吠陀의無有歌 (Nasadasiga Sukta)다

(一)太初에無(asat)도 업고또有(sat)도업섯스며 空界도업고 또그우의天界도업섯더니라 무엇이이것을가리웟든가 어듸가서이것이잇섯든가누가이것을 직혀든가저水(Ambha)는 엇더하엿스며 無底의깁히는엇더 하얏든가

(二)그쌔에 死가업고 또不死(amrta)도업스며 晝와夜의表現도、업섯더니라獨一한그이 (Tad ekam)는숨人소리업시(avatam)저절로 呼吸하니그의外에는다시아모것도업섯나니라

(三)오즉 闇黑(tamas)만이잇섯스니이一切(idam savam)는闇黑에가리워진 암암한波動界이더니라 虛空에싸여잇는原子(abhu)는저 혼자(Tad ekam)熱(tap)의힘을 인하야出生하니라

(四)그가開展하야(astadad hi samavartta)이에 비로소愛(kama)가잇스니 이것이(manas)의最初의種子 (vetas)니라이것이곳有와無와의連鎖니聖者等(Kavayah)이 그達識으로써 心(hrd)에차자서發見한바니라

(五)그네의 繩尺(rasmi)은橫으로遍通하얏도다 下에잇는것은 무엇이며上에잇는것은무엇이뇨 種子를 먹음은것(Retodhab)이存이고 勢力을지닌것(Mahi manah)이存하도다 自性(avadha)는 下에力用(prayath)은上에。

(六)진실로 누가이것을 알랴누가시방여긔이것을 說明할수잇느냐 그는어데로서生出(ajata)하얏는가 어데로서 이造化(visrsti)는 왓는가諸神도또한 世上創造의近時에屬하얏도다 그런즉그가어데로서 現出한지를알이가누구로

(七)이造化의 由來한本主는과연이것을 造作(dadhe)하얏느냐 혹시이것을造作하지아니하얏느냐最高의天에잇서서世上을監視하는者만이이것을아시리로다 혹시또한모르실가하노라

문득生主歌 (Prajavatya sukta)가나타나고 문득造一切歌(Vsvakarman)가나타난다。

『그威神力을말미암아서 저雪山(Himavat)도存하고海고天河(Rasa)이고 모도다그에게屬하얏다 하는도다 이 天極(Pradis)은 그의兩臂로다』

『四方에눈을가지고 四方에낫출가지고 四方에팔을가지고四方에발을가진唯一의神(Deva ekah)은 그兩腕과날개로써天地를만들면서 이를불부채질하엿도다』

내고장의 風俗習慣

□□ 投稿歡迎 □□

◇三千里坊坊谷谷에는 대개 한두가지特色잇는 風俗習慣이잇슴니다 良風美俗도잇고 惡習鄙慣도 잇슬것입니다

◇良風美俗은 宣傳하기爲하야 惡習鄙慣은 改革하기爲하야 한번 全朝鮮同胞의압헤 公開할必要가잇슴니다

◇또善도아니오 惡도아니나 或은 歷史의一片으로 或은會心理의一片으로 或은傳說의一片으로 興味잇는 風俗習慣도잇습니다

◇이러한特色잇는 風俗習慣을 누구시나 記錄하여보내시기를바라오며 本紙에 採錄되는것은 薄謝를드리겟습니다 만히 投稿하시기를바랍니다

◇投稿規程 一、皮封에『風俗』이라必書할것 一、同人으로數種도좃코 一、用紙는郵便葉書 一、期日은一月末日까지

伊川消費組合 지난三日에創立

江原道伊川郡邑市場은挽近數年來로新市街의整理를다하야大發展이되엿스나元來經濟에窮乏한朝鮮人에게는何等의影響이無하고但只中國人과日本人이優勢로進興되는反面에朝鮮人의苦痛은日益增加하야經濟에慘慘한破滅을보와對策과將來의活路를開拓하기爲하야當地有志는지난三日伊川面事務所에集合하야伊川消費組合을創立하고資本金二萬圓으로一般物貨의通商과經濟의圓滿을圖하리라더라

義州圖書館 不日間開館될듯

義州基督教青年會에서는義州에尚今것一個의圖書館이無함을遺憾으로生覺하야同會長康祥外諸氏의熱烈한活動으로圖書募集에자못奔忙한中발서募集된書籍도數百卷에達하야實際豫期以上의好成績을엇게되엿다는바各方面에뜻잇는青年들이同館을爲하야만흔圖書를보내주심을切望한다하며이제얼마아니하야開館式을擧行하리라더라(義州)

地方人事消息

◎林泰龍氏(奉天居留民會副理事)私務를帶하고 一週間豫定으로歸國

◇地方短評◇

◇咸春 最近張作霖은在滿同胞에게戰爭費를强請한다고제버릇개못주는法이야!

◇延安 美山里金某의집에는八圓債務外에十四名을留率한債權者가달녀들어食器、항지、주걱等屬을모다빼아서갓다고그아말로名實相符의債鬼

◇玉果 勞働組合精米部員五十餘名은一月一日에突然히同盟罷業을斷行하엿다 新年勞頭부터『玉果』나어들는지?

◎訂正 本報昭和元年十二月二十八日號外第二面에揭載된城津强盜란題目下의記事中金昌洙는金洛允의誤植이기兹에訂正함(城津)

麻衣太子【下篇】 (八十三)

春園 作 丹谷 畫

마의태자 (二)

공주는태자를우럴어보고다만늣겨울엇다。그러나 태자의눈에는눈물도 업섯다。

『열두번이나 돌아가시엇다던동궁마마를 오늘뵈오니 생시인가、꿈이가、혼령이신가』

하는공주의말에태자는、

『열두번죽으랴도 죽지못하고살아잇는 내몸이붓그럽고슴에 곳게매친원한이 내목숨을붓들어 죽지도못하게하고 살지도못하게하고반은죽고반은살아반은사람모양으로반은귀신모양으로 나지면숨고밤이면 나와다니노라。죽지못해사는신세는 나를두고 니르는말…그런데 락랑공주는──락랑부인이라든가! 어듸로 가는길에 길을잘못들어이리로 오신고。크게길을잘못들엇세라』

하니공주는태자를우럴어보며

『날더러 길을잘못들엇다하시난고。십년人동안헤매고 찻던길을오늘이야 차잣다고하소서。본래는 찰라히땅人속 깁히깁히파고들어가 숨는 무엇이되리라──

하고 머리를흔든다。

『어이하야 그런말슴을하는고 안가리라 안가리라

『나라망한것이 동궁탓이아니어든 어이그리원한이 깁호신고 그리생각말라。니즈라! 니즈라!우리 다닛지아니하랴나닛고

하고 백화부인이 태자의곳흐로걸어와 그억개에 손을언는다。

『니즐가。니저질가』

하고 태자는 고개를숙인다。

『니즈소서。안니즈든 어이하리』

하고 계명도태자의곳흐로온다。

『동궁마마! 이모든원한이 이몸의 아바마마탓이라하면 이몸으로 그죄를 지지는못하엿다。이몸이 디옥도(地獄道)에떨어지거나 축생도(畜生道)에떨어지거나 동궁 마마의 슴품과원한을 풀지못하ㄹ이가。그리할 도리는 업사오리잇가』

하고공주는합장한손을땅에다하고 머리를 그손에대하던채(때

社告

本支局記者金均君은辭任하얏삽기兹에社告함
東亞日報 全州支局

本支局仙掌駐在記者梁琪煥君은辭任하얏삽기兹에社告함
東亞日報 禮山支局

今般本支局記者李國華君은辭任하고如左히記者를任命하얏삽기兹에社告함
記者 林應龜
東亞日報 晋州支局

◇碧潼◇

金銀白金 美術品 眞鼠物 郡飲商 金運商會 京城府公平洞八八(鍾路四街) 主 權性淵 電話光化門二一五九番

碧潼郡廳職員一同

碧潼面事務所碧潼憲兵分遣所 職員一同

碧潼警察署 職員一同

平北碧潼邑內 職員一同

碧潼郵便局員一同

郡邑內 司法代書人 金允堤

平北碧潼郡邑內 吳仁錫

平北碧潼郡邑內 海東商會

平北碧潼郡邑內 醫師 張錫燦

平北碧潼郡內 金融

碧潼郡邑內 光成木工場 金仁悅

平北碧潼郡邑內 同商會

碧潼 碧潼金融組合

平北碧潼郡邑內 天一社

◇高山◇

全北高山邑內 高山面事務所 職員一同

全北高山邑內 高山面長 高丙浚

全北高山邑內 高山自動車部 主 俞楨濟

全北高山邑內 高山公立普通學校 校長 泉谷名輔

全北高山邑內 天一商會 主 高永植

全北高山邑內 高山郵便所長 藤井義雄

全北高山邑內 高山金融組合書記 張永震

全北高山邑內 高山面協議會員 吉田和市

全北高山邑內 高山金融組合 理事 嚴敦永

全北高山邑內 高山金融組合 書記 李時榮

全北高山邑內 高山金融組合 書記 全鳳喆

全北高山邑內 高山公立普通學校 訓導 嶋川常春

ClibPDF - www.fastio.com

懸賞論文 農村振興策如何 (六)

當選者 京都 盧 東 奎

그러나 繼續하야『即社會狀態의 큰變動을 豫想하지아니하고 現狀을 떠나지아니하고 現狀의 土臺우에서 可能한救濟策을 論議하라하는것이다』라고함에 至하야는 吾人은贊成할수가업다 우리가 萬若現今의政治關係 經濟關係 即民의니른바 社會狀態를 當然히變動할것이라고 잇는다할것가트면 우리가其큰變動을 豫想치안는다는것은 矛盾이다 將來의來策과 理想을否認함이아님가한다 吾人이以下論하라는振興策은 將次일어날社會狀態의큰變動을豫想하고 그러나現狀을土臺로한 準備的救濟策이요

◇將 次根本問題에接觸하랴는 暫定的姑息策이다 即農村振興策은 우리의解放運動의不斷의努力 우리의社會理想을實現하라는永遠한前進의 一方面一過程一序曲이될에 뜻이잇슬것이다 將來의社會關係의根本即『社會狀態의큰變動』을 豫想치안는 單純한救濟策姑息策에不過하다면 이것은反動運動에不過할것이니 吾人은斷然히排斥할것이다

◇다 음에우리는農村振興策과階級運動과의 關係를考察하지안을수가잇다 吾人은農村振興策의目標로農村社會의改革 民族○○의兩者를擧하였다 그런데이目標에到達하라면 不可不全체農民의八割을占하는 小作階級을 現在의水平線以下의生活에서救濟向上케하야겟다 이것을爲하야는 지금과가치從來의徒食하는 地主階級의犧牲이必要하다 萬若그들이覺醒自進하야農民의指導者가되고 振興策의先頭者가되야 外來의資本主義에對抗한다면 問題가업스나萬若此擧에不出하고 現在의地位에戀戀하야 農村振興의障害가된다면 農村振興策은小作運動의形式으로 階級運動의第一步를取할수밧게업슬것이다 그러나우리의死活問題인 農村의破滅이

◇外 來의資本主義로因하야日復日激化하는에 必要한程度以上의關係를爲한 關係를삼가서 農村振興이란共同目的을爲하야 必要한協調에잇슬것이라한다 그러나農村振興의終局的解決은 資本主義라는根本的桎梏에서 버서날때에잇다고생각한다

우리는以上에農村振興策에關聯되는 가장重要한네가지問題에對한 吾人의態度를闡明하하엿다 그러면果然現實에立脚한準備的 救濟策暫定的姑息策으로의農村振興策은 如何한것인가? 吾人의보는바로는첫재現今의農村生活을凾繞하는 封建時代의遺物인 階級制迷信其他의生活樣式을打破할것이며 둘재一般農民階級에게 적어도

◇最 少限度의生活資保障나가서는多少餘裕잇는 生活을할수잇도록할것이며 셋재農民教化아모리그들이生活의 安定은된다하여도지금과가튼 文盲으로는到底히社會運動上 絶大의勢力이될수업슬것이다 이에吾人은農村振興策의 當面의 『푸로그램』으로農村生活改革案 農民收益增進案 農民教化案의三者를擧한다 以下우리는動을난호아 此三綱을次序대로考究하이잇고 다음에其實行方針을論하고 最後로第二段의푸로그램을論하려고한다

第二節 農村生活改革案

우리農村社會의組織과根底가아직도封建時代의觀念的 遺物에서 버서나지못하엿다 日益進展하는世潮는 農村에도訪問한지이미오랫스되 外部로오는破壞作用과 內部에서일어나는分解作用으로 半身不遂가된其遺物이아직 農村生活을支配하고잇다는것이 今日의實情이다 몬저이쌓어저가는遺物을 徹底히一掃하야겟다 基督은新酒를新囊에넣수업다고 하엿거니와舊로새生活은不合理한낡은 觀念과

◇兩 立할수업나니몬저其封建時代의 遺物을完全히破壞一掃한後에 農村振興을말할것이다 이제其遺物의內容을檢討하여보자

[一]班常觀念打破 班常觀念이라는것이 其一이다 우리가한번 農村에가면小有產者階級의 驕慢 無產農民이卑屈一참말 氣가 막힌다其理由를 삺혀보면 經濟上强弱者의地位에서 由來함이 아니요實은 封建時代의 遺物班常觀念이 그들을支配하고 잇는까닭이다其實證으로는 그들이衡平運動에 對한沒理解妄擧問題며族譜刊行의 盛行을보아도알것이다 이班常觀念의打破는實로모든向上運動의 先行條件이다 우리는이點에서衡平運動의 功勞를多로인다 따라서

◇同 運動이더욱발展하야하로맛비 所期의目的을到達하기를비려마지안는다 班常觀念과關聯하야 其二次的産物은宗親本位及宗族制度를 打破하자 또其二次的産物인依賴心과 因果心을去根하자 그리고班常觀念이代에人權觀念 平等觀念을 基礎로삼자 그리면宗閥本位로人才本位로 宗族制度는各種의社會組

(二)迷信打破 封建時代의遺物은 其外에도數업시만호나一一히列擧하는煩을避하고 一言으로말하면

織論로自然變할것이오 獨立心과自尊心은 스스로생기리라 『이데올로지ー』의第二遺物은迷信이다 現今의農村生活의陰散한迷信속에서 헤매는樣은白日에靑天을 보지못하는넷말에나오는 盲者에비여도過言이아니다 이迷信의種類는多種多樣이다 그들은政治的으로는鄭道令의出現에渴望한다其

◇憑 아도리혀可笑로우나이民衆의 弱을 乘하야私腹을채우는幽靈의宗教團體 宗教의仰向을 包括雜糅하야 말로可怕하다 그들을農村에서驅逐하자 幽靈의本源인迷信을打破하자 巫卜術의邪教 『사마니즘』을打破하자愚直한農民들은 그들의荒唐한소리를 그냥 別別우서운짓을하고잇다 宗教는民衆의 阿片이라는말이잇거니와 우리農民은迷信이한刑片中毒되엿다 몬저그들을中毒狀態에서 어서 지금自己가當하고잇는 處地를 뜻뜻한意識으로 살펴볼수이게할것이다 이迷信打破를爲하야 非信敎가貢獻이 만흔것을 沒却하지안는다 그러나 啓蒙運動의 先驅者이던 非信教가 近者에는 『사마니즘』의代에

◇神 秘的來世主義로서 民衆에게臨하야 反動化하는嫌이잇는가? 업는가? 吾人은非信教을爲하야 只今猛省하야從此로도 改宗運動의 先驅가되기를바란다 『사마니즘』의分派요가장進化한者가 陰陽家의地理說이다 近年共同墓地의普施로大打擊을맛고도 무엇잇는潜勢力을가진 陰陽說을打破하고 陰陽家을驅逐하자 이모든迷信을打破하고 宇宙의秘密은科學으로解析할수잇다는것을아르키어야한다

(三)虛禮의打破 儒教의餘澤이라할가! 吾人의日常生活을支配하는煩雜한 儀禮를打破하자 儀禮는元來人生生活을圓

◇封 建時代의觀念的遺物이라할 現在農村生活을陰散케하는모든陋俗廢風을一掃하고 農民으로하여곰 人權의發展과科學의必要를알게하고 活氣잇고勤勉하고 自尊心을가지게해야할것이다 이觀念的遺物을打破하고 農村生活의基調를一新케하는任務는 靑年運動이擔當할性質의것이라한다 靑年運動의社會運動線上의使命은 이러한啓蒙運命에잇다고생각한다 無論後進의農民教化運動과 不可分의關係에잇는것은 多言을不要한다 以上에우리는農村生活의基調를一新할必要를 力說하엿다

우리가打破해야할封建時代의遺物은 其外에도數업시만호나一一히列擧하는煩을避하고 一言으로말하면

化하고 崇嚴케하는作用을가젓스니一例로 排斥할것은 아니나 無意味한虛禮를爲하야 우리農民들은 貴重한時間을浪費하고 또活氣조차업서짐이 莫大하니 吾人은斷然히精力을消耗하는 虛禮를打破하자 그래야만 그들에게進取的氣象革命的勇氣가일어날것이다

青年運動統一振興策

本社懸賞論文選外佳作

□京 城□ 李 石 初

懸賞論文은投稿數交가相當하엿슴을不拘하고當選된것이업섯슴은매우섭섭한일이엿스며이글도朝鮮青年全部에對한것이되지못함으로選外로한것이올시다(探選者로부터)

그러고서 一見그非職業別的性質을가진 職業的青年團體에다가職業別的部門을 두게한다는것이다 그것은 組織에對한根本義意를 發生케하자는것이다

小都市 農村에잇서만一흔混成的青年團體가이다 그리하야그團體들은 그것이郡聯盟으로서統率되고或은道聯盟이組織되여서도잇다 그러나事實에잇서는郡聯盟道聯盟도 그것이組織의權威를 完全히獲得하고서잇지못하다그곳에서 우리는組織의形式化에서 이러나는弊害를볼수잇다 組織에對한方法論을缺失한까닭이라고한다 첫재로잇서서小都市나 農村에잇서서數만흔 青年團體가잇다그것을爲先地域的으로 整理하야完全한團體를 만들기에努力할必要가잇다 그리하야그것이한개의團體로서確實히 運動하게된以後 처음으로郡聯盟이될수잇는것이다 그림으로 될수잇는데外지그것이 活動을可能할수잇는機能의範圍안에서 結束할것이다그러하야 職業別的縱斷的組織보다는 오히려全體的組織의職業別的 縱斷的部別設置를止揚하다고 하겟다이것은表面에組織方式이겟스나 그밧게떠욱重要한組織에잇서는 그것을敢할수밧게업다 다못朝鮮의青年運動이 그組織을體系업시秩序업시하게하것은 그것이또한重大한原因이 過去派爭에잇다그러나압흐로는 朝鮮青年運動의組織的行動도 漸漸規模를어들줄안다

一 青年運動의 分化作用

압헤도말한바이어니와朝鮮의青年運動은 勞働運動의半分의責任을한가지하고잇다 그것이朝鮮의特殊한 形態라고할지라도그것만큼 青年運動의그重意가重大한것이事實이다 在來의青年運動에잇서서는 階級青年一團이朝鮮 青年聯合會에서旗幟를달니한이後 一切의妥協行動을排絶하엿섯다 鈍階級的理論아래에서뚜렷한 剿線을그어놋코서民衆과 對하게되것이다 그리하야同僚가 아니면敵이라는決定的條件아래에서 모ー든運動을

進行한 것아事實이다그러나우리는우리의 運動이다못潔癖함으로서만되는것이 아니인것을알게되엿다 우리는우리의意識이갈과갓치 날카랍고뽑과갓치또거울사룩 資本主義內部로더욱더욱또 한그속으로드러가서의分化作用을 이르켜야되겟다는것을 늣기게되는것이다 運動의潔癖은 一般民衆에 게서隔離할危險을 준다우리運動은오직民衆속에드러 감에잇다그곳에서우리는 無產階級의全要求를드를수도이다 目睹할수도이다또한거기에서 우리도모든自身의觀念을 超脫하고서一直線으로運動의步調하게 되는것이다一九○○ 年代의露西亞의民主主義的 前衛分子들은 與論을들고서,特히 農村에로들어갓다그리하야 그들의傳道는카도릭크教台를 떠나民主主義의宣傳에全力한것이다

그로보아서 朝鮮의 意識的青年들은 在來의潔癖性을버리고斷然히運動을 轉換하게될것이다 그것이性質로보아 썰조아지들의 灰色團體이던지 或은宗教的의 異流團體이던지何如間 그것이多數의 青年을吸蓄하고서잇는以上 意識青年들은이곳에潜入하야 醱酵할必要가잇는것이다 그리하야그들에게熱誠잇는 宣傳과아울너教養으로써

그團體 의性質을 階級的으로轉換식켜야될것이다 轉換식힐武器는 그것이余혀教養的努力에잇다 더욱이朝鮮의中產階級的青年들이 階級青年化할必然的性質을가진以上 더욱그效力이迅速할것을안다 教養에잇서는 都市에잇서서都市의勞働青年을吸收키爲하야 勞働學院을設置하고 勞働青年들의俱樂部를施設하며 中產階級的青年들에게잇서는 社會科學研究會와갓튼集會를모으는 一方時時로 講座를열게할것이다 또한農村에잇서는 『農民講習會와갓튼것을設置하고서 現今으로는 急先務로 朝鮮『언문』갓튼것을普及하야 첫재로冊보는法을가리키게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注意할바는 그것을指導할사람 即그것의責任의當할사람은 그것이意識的階級青年이라야된다 그러하야 그青年이第一線에서좌우는동안 그들은訓練을밧게되고또한 意識化하야지게되는것이다 中產階級青年以外 無產階級에處한 青年自身들中에도多數가 非常히朦朧한空想속에서徘徊하고잇다 그들이 巧妙하게自身만을살니라고서 資本主義의走狗가되여가지고잇다 그러나그들에게 새로운覺醒할만한事實을提供하야서 그城壁을넘어서街頭로 나우게만드러야된다 異流團體에도조타 官制團體도조타 丁場도조타 會社도조타

銀行도 조타 그보담더한곳도조타 可能하다면 一切의資本主義組織內部로 깁히뛰러들락고서余여들어가자 그리하고는分化作用을 이르키여야된다 假使그作用이『아루카리』性과酸性의分化갓튼 中和作用을이르킨다고하야도 그것은우리에게 반다시必要한教訓의한개일것이다

우리는가장尊敬하는同僚이오國際青年運動의 先驅인 저ー『리부크이히트』와 『룩셈부억』이 그들의피로서 아리케준바한개의歷史的偉大한 教訓을알고서잇다 그것은獨逸一月革命의敗北이다 그것은當時運動의先鋒이되엿든 伯林의少數都市勞働者들의 前衛는

全獨逸 의無產大衆과는孤立한一揆的革命分子의 小數에不過한까닭이다 彼等의叫呼에는 大衆의反響이업섯다 彼等의突擊은 後續部隊가업섯다그것이組織的이 아니엿든까닭이다 運動全體를通하는 鞏固한統一과聯絡이업섯다 그러나그들이勇敢하고 純潔하엿든것이야누가否認할수잇스랴 民衆속으로드러가자 그리하야分化作用을이르키자 그것은朝鮮青年運動이必然的으로 發하고잇는말이다 그러나 그것이精密한組織과聯絡됨에잇서만 效果가잇다이제簡單하나마이곳에『레ー닌』의말을 引用하야서우자 『우리들의最初에 이러나는疑問은無產階級에必要한 訓練을如何히統制하며 또한如何히大衆어더케할것인가 그團體들을强調할것인가』 라는것이다 그것은첫재로無產階級의 前衛青年들의階級意識과 及運動에對한信念과 堅實純潔함과 自己犧牲의勇敢한 精神에依하고의다 또한둘재로는 沈痛한生活가운데서 울고잇는大衆속으로들어가서의 그들과의親善한結合의才能 可及어느程度外지의非無產階級

苦勞者 들에게活動하는바結合의才能에依하고서잇다ー中略ー그와갓튼 條件을떠나서는團體의訓練 即그것이참으로有產階級의倒潰와 社會組織의改革을目的으로하는 前衛團體의訓練은 實現할수업다또한그條件을떠나서는 그訓練을實現하려는바 모ー든計劃은 그것이한개의空喇이며 曲藝에긋치고말것이다』 (레ー닌『左翼分子에게戒함』)

一 民族青年과協同提携

青年運動者들이 먼저그自體의組織을嚴密히하야서 그統一된聯絡으로서 資本主義的現實에浸潤할必要를말하엿다 그것은現實을가장 有利하게克服하야青年運動을 根氣잇게 大衆우에다樹立하자는것이다 그곳에서우리는 朝鮮의經濟的政治的形態를注視하게되는同時에또한特殊한朝鮮의 大衆形態속에서 注視하게되는同時 또한特殊한朝鮮의 大衆形態속에서過視케못할바 民族的青年의一團을發見할수잇다(繼續)

只今은『福淸橋』 惠政橋의來歷 (五)

＝합부로改名된舊跡一覽＝

□□李 重 華□□

◇然한대實物의鍾樓가無하나他地名의鍾樓는依然히變치아니하고傳來하엿는데記述上으로觀하면或은舊名을陷與하고或은實際를取하니玆에數例를舉하면光海十一年己未三月(西曆紀元一千六百十九年)에 鍾路로부터朝鮮支咽에至하기外지延燒한大火에對하야亂中雜錄에는

都中失火自鍾樓銅峴至南別宮延數千餘家人畜死者甚多

라하고東國文獻備考에는

光海十一年己未京城大火延燒鍾閣南別宮及數千餘家人畜多死

라하고正祖時에詩人으로著名하든四家中에朴楚亭의其城市全圖詩에

梨峴鍾樓及七牌
是爲都城三大市

라하고同히四家의一人인柳冷齋의京都雜志의正月記事中에

曉聞鍾閣十字街七牌龍財衆

라하야鍾路와楚亭詩에出한鍾樓는地名의鍾樓를意함이며凝川日錄의(仁祖四年丁卯二月十八日西曆紀元一千六百二十七年記事에據하면

今年都下傳言鍾樓懸鍾出水點滴觀者齊波道路塡塞(下略)

이라하야鍾樓가焚燬한後이로미此에不拘하고正히實物의鍾樓가在함과如히鍾閣懸鍾이라하지아니하고鍾樓懸鍾이라하나此는因襲의故로樓가燬한日이淺한時라故로前日의慣用하든名稱을猝地에改하지못함이라하리라

◇斯와如히鍾樓와鍾閣의兩名을並用하야最近의官廳記錄에도地名의鍾樓를仍用함을往往히見할수잇는바이라 然하나民俗이鍾樓의地名을傳來함은小毫도變함이업스되歲月의久遠하며實物의樓가無하야漸히其由來를忘却하는境에至한즉做似한音을取하야鍾閣라音함도有하며만침내鍾路로轉化하니此는全혀最近의事라改革派首領金玉均甲申日錄十二月一日記事에據하면

至鍾路酒樓月明渾如鎔銀

이라한一節이有하니鍾路는其音에在한道路라하는意味下에鍾閣의名稱이遂히普及함이라鍾閣이在한道路를鍾路라함은地方都市에도例가有하니平壤과水原等이是라

◇然而當時鍾路의區域은現今과如히廣漠한者가아니오鍾閣이有한附近의甚히狹小한地域이엇슴을玆에一言으로써證하노라

鍾路와市廛

◇京城에서朝鮮人의商業中心地를言하면鍾路를稱하고大商을論하면鍾路商人을必히先擧하나니此는前記定宗元年에惠政橋廊을設하야商人을處케한中에(鍾路一丁目)로부터昌德宮洞口(鍾路三丁目)外지左右에市廛行廊이今의法院門前以東과中央靑年會館부터以西와大廣橋以北의地域에集中하얏슴은故로鍾路商人이라함은此地域內의商人을謂함이니東寰錄京都篇에

雲從街 興地勝覽云鍾樓西街
即今京都市肆之通衢大都會在
廣通橋北

이라함에依하야其一端을可窺할지며且都城圖에據하면惠政橋以下로今의鍾路五丁目外지至하는市街左右에各廛의位置를表示하얏는데前記鍾路區域內의北便에貢緞廛 苧布廛 立廛 銀麴廛 黑笠廛 銀房 魚物廛이在하고廣通橋以北의西便으로始하야左折하야貢緞廛의相對便에至하기外지가綿子廛 紙廛 白木廛 靑進床廛 綿紬廛의位置오廣橋以北의東便으로始하야右折하야魚物廛의相對에至하기外지에馬床廛 綿子廛 紙廛 布廛 車床廛 樺皮廛 靑布廛 草笠廛 磨鞋廛이點함을表示하니其中에樺皮廛綿子廛等의位置가異한外에最近에比하야大差가無하도다

◇光化門前路가官廳이多하다하야『官街』의稱이有하엿슴과如히鍾路는鍾樓가有하얏고鍾樓가無한後에는遷元된鍾閣이尙今外지有함으로『鍾街』의名이有하고國初부터四月七日에此街의觀燈이最히盛壯함으로『燈街』의稱이有한外에『商街』의稱이有함도鍾路가商業의著名地임에由함이다

現今制度와異하야往時는商人一般이營業에對하야所定의稅를納하는外에各廛中의實한者即物貨의販路가廣大한者는特히國役에出하는義務가有하니此가所謂奉公役이라

◇文獻備考에據하면市廛을有分과無分兩種에分하야公役을奉하는市廛은前者에屬하얏고公役을奉치아니하는市廛은後者에屬하얏스며且有分各廛을十等級에分하야一等級에列한者는國役十分을應하고以下遞減하야十等級에列한者는國役一分을應하엿도다 然한데(立)廛 綿布(白木)廛 綿紬廛 紙廛 苧布廛、內外魚物廛 靑布廛 布廛 烟草廛 新床廛 十二床廛中의望門床廛 五處米廛中東床廛 靑進床廛 下米廛 門外米廛의上米廛 綵穀廛 生鮮廛 鍮器廛 銀麴廛 衣廛 綿子廛 履(鞋)廛 樺皮廛 茵席廛 眞絲廛 淸蜜廛 京鹽廛 髢髢廛 內長木廛 鐵物廛 烟竹廛 內外匙箸廛 牛廛 馬廛等三十七廛이有分廛에其他諸廛은無分廛에編入되엿도다

◇前記有分三十七廛中에서도優等級에列한縇廛은十分役을綿布廛은九分役을綿紬廛은八分役을紙廛은七分役을苧布廛은六分役을內魚物廛과靑布廛을合하야九分役을應하니此를稱하야六注比廛이라六注比廛은六矣廛이라或稱하나此는吏讀文의慣習이라하리로다

萬機要覽에

王都之制左祖右社前朝後市市者小民之貿遷係爲公家之需用貿爲治國者莫之都下各廛所以安坐買也大者有六曰縇廛、綿布廛、綿紬廛、紙廛、苧布廛(兩廛合分)內外魚物廛(兩廛合分)是爲六矣廛(俗稱六注比)

이라한지라此에出한六注比廛을文獻備考에記載된者에比較하면注比廛의異動이生함을可知할지니此는正宗十八年甲寅에左議政蔡濟恭가建白하고六等級四分役의內魚物廛과七等級五分役의靑布廛이合하야九分役을應함으로二等級에列하야一注比를持하엿든것을六注比外에降附하고六等級五分役의布廛에一注比를與하야縇廛、綿布廛、綿紬廛、紙廛、苧布廛、布廛이六注比廛으로되엿더니 純祖元年辛酉에領議政沈煥之가建議하야內魚物廛에七等級四分役의外魚物廛을合하야一注比로하고苧布廛과布廛을合하야一注比로하야서六注比의數를備함이라然하나靑布廛은永히注比廛外에降附되며一落千丈의勢로또三分役八等級에列하엿도다

◇斯와如히六注比廛은變動이不一하더니高宗初에至하야는六注比廛은八注比廛으로變함인아니라廛號의改稱이生하고有分各廛의數로增하야其數가四十에達하며또한等級의異動이生하며無分各廛의變遷도大하야廛號를新興한數와廢止된數가多하니六典條例에據하면立廛、綿紬廛、白木廛、苧布廛、紙廛、布廛、內外魚物廛을八注比廛이라하며鞆床廛과如한者는今혀新興한者로서二分役에列하며生雉廛과鷄兒廛을合한雉鷄廛은紬鞋廛과共히無分廛으로서各·分役에編入되엿도다

◇以上京城市廛의變遷의概略을示함이라然한대今에首廛인立廛과白木廛의廛號의源因或은變遷을一考하면자못奇異하다할지라立廛은文獻備考에縇廛이라爲한萬機要覽에縇廛이라하엿는데兩書에共히注하야曰

貿匹緞俗稱立廛

이라하엿나니俗히緞屬을稱하야『비단』이라함은匹緞의訛傳이오『縇』과『線』은音이共히通하야兩字가다『立』字의訓音을表함이니『縇』、『線』과『立』三者의頭字가各異하나共히一律于遍으로『선전』을表示함이라

◇自來로立廛商人의傳來하는口碑에依하면匹緞을貿하는商人의廛號를『선전』이라하고漢字로書하매『立廛』이라하며市廛中의第一位에居하게된은漢陽定都初에政府가開城으로부터移來함에當하야匹緞을貿하는商人이最先隨來하엿슴으로政府는市廛中의首廛으로認하며『나라와함께선(立)『廛』이란意義를取함이라하는데此는無稽한傳說이아니오首로立廛의實錄이라할지니萬機要覽에曰

立市之初先立線廛之意與立之義相似故亦稱立廛

이라한一節이足히此의證左가되리로다

◇白木廛은綿布廛의變稱이니文獻備考와萬機要覽에綿布廛在에이라하엿스되此에不拘하고萬機要覽과六典條例에原名인綿布廛과變稱된新名即白木廛의兩者를共用하나此는綿布廛이變하야白木廛이되엿스나舊號를仍存하야考據의便을取함인가하노라(終)

◇附言

杜撰을免치못할本稿로數日里紙面을汚하며讀者에게眩惑을貽하야恐懼한中에더욱誤字가多하엿슴은余혀注意치못함이라오직容恕를비옵나이다

◇美 山 黃 龍 河 氏 筆

토□씨□타□령 (五)

＝傳說의擴布上으로보는 人類文化의原始世界性＝

崔 南 善

머지說話 (흔히童話、 Fairy tale, märchen)로말하면 特定한時代나 方所나 人物의制約이업서서 진실로興味의同情만가젓스면 그만이기때문에멀리퍼지기도하고 오래傳하기도하야 그勢力과生命이아울러强靭性을가지는것이다

◇

말은누고든지하는것이로며특히辯客이잇고 詩는누고든지지을수잇는것이로며 특히詩의天才가잇는것처럼 說話는어떠한民族이든지 다그作者될수잇고 實상그作者이로되 印度及印度人만흠說話創作上의能率과成績을나타낸이는업다 印度人은진실로天才的說話國民이오印度는실로無盡藏的說話國이다 說話의起原을說明하는이中『막스、뮬러』、『쏘지、콕스』等은一切의說話는印度에서發生하야四方으로傳播한것이라는學說을力主하야一時는學界를風靡하는概가잇기外지하엿다 진실로往聞함아니엿다 後에이르러『아리아』種族以外의種族에도 特異한說話가만코그中에는四五千年以前의記錄을가진것이發見되는等、이一元的發生說을妨害하는 여러가지事實이나옴으로하야 印度淵源說이 마츰내支持하지를못하고말앗슬법하야도 졸잡아도歐洲童話의三分之一은 印度로서由來한것임과 世界童話의主要部分이 印度로부터擴布된것임은 분명한事實이오 더욱그中에서動物을主人公으로한教訓的寓話로말하면 大部分아니거의全部가印度의것을承襲한것이오 그러치안하도그것을模倣한것임은의심할수업다한다 그런데印度로하야곰 이러說話的宗主國이게함도 또한偶然한일아니엇다

◇

印度人의思想及生活은 미상불說話創作上으로 特殊한恩惠를바닷다할만하엿다 思想의上으로말하건댄 生氣說과變形의信仰은 언제든지印度에잇서서 가장活力을가진것이엇스니 動物은무론이오 植物礦物外지도 사람허고마찬가지의 心法득히 道德的意識가튼것을가젓다하는 印度人의人生觀生物觀은 커뎌로非人的生物을主人으로하야 處世의秘方과 入道의妙諦等教訓을包含식힌道德的寓話를 진작부터發生케도하고 오래두고 發達케도하얏다 外物도사람가는心識을가젓다하는『生氣說』 (Animism)로말하면 어떠한民族이든지 原始時代에는똑가치 가지는思想이지마는 다른民族에서는思想이發達하는대로사람과다른生物間의이限界를밝히게됨이通例어늘印度에서는思想이 進步되는대로더욱이限界를적게한傾向이잇섯다 그리하야紀元前七八世紀頃에成立된奧義書哲學以來로는 『輪廻』說『業緣』說이란것이 漸次로發達하야 그後의모든學派와 乃至佛教에外지 다이것을信認하고 마츰내一般의民間 信仰을이루게되엿는데 이輪廻說이란것은 要하건대 人畜을通하야 그個我前生의行爲를딸하서 서로돌아다니면서果報를밧는다하는생각이니 이것을平面的으로보면 現在의諸動物(乃至植物)이다사람과等類한것의換生된者이오 本來는사람과同一한心法을가젓다하는것이된다 이러한思想은다른民族에도 약가이지안흔것아니지마는 特히印度思想의一大特色을짓는것이오 이道德的意識과因果應報律의人畜共通이란생각은 動物만들기에 매우緊好한機緣을지을밧게업섯다 兼하야 그네의生活은 大原野오大森林의中에서 驚異할만흔自然의威力에關係되여 그結果 嘆과思索을일삼게되고 그餘로論辯을조하하게되고 그驚異의로比喩를살하게되니그驚異의喩가 만히說話로表現됨은 한自然한數이엇다 이러구러印度는 世界說話의最大原産地를 짓게되엇다

◇

印度의寓話文學은 一種의學、一種의倫理書로 진작부터發達하엿섯는데 이同一한源으로부터서二大派로 난호이게되니 그一은婆羅門의寓話文學이오 또一은佛教의寓話文學이다 前者는대개婆羅門이國王大臣其他一般民衆을化할目的으로 맨든것이니 『五章喩』(Pauchandra)『修身訓』(Hitopatesa)은代表的典籍이다

◇利 川◇

利川郡夫鉢面竹堂里 金 基 杓

利川邑內 貿易商 東信商會 朴 魯 憲 電話一五番

利川郡栢沙面乞方里 殖産株式會社

利川邑內官廳里 利川精米所 俞 璡 植 電話六番

驪州郡興川面外絲里 李 敏 應

利川邑內官廳里 利川酒造場 俞 晥 植 電話六番

驪州郡製紙 金融組合理事 增野虎雄

驪州郡 金沙面事務所 職員一同

利川邑內倉前里 雜貨醸酒 共信商會兼 共信釀造所 李 仁 載 電話一二番

利川教育後援會

利川邑內面倉前里 區長 文 儁 植

利川材木商 黃 應 立

利川、京城間 午前午後定期出發 利川自動車部 董 承 鉉 金 鎬 近 利川電話三八番 京城電話光一七五九番

利川邑內 シンガーミシン會社 利川分店 主任 李 定 載

利川邑內 利川産業社

利川邑內 利川金融組合 理事 中野憲一

利川邑內 朝鮮商業銀行利川支店 行員一同

利川邑內 濟衆醫院 院長 金龍駿 南瑛鎭 電話二四番

利川邑內倉前里 丸三自轉車商會 主 尹貫吉

利川郡 邑內面事務所 職員一同 電話二一番

利川邑內 利川郵便所 所員一同

綿布商 利川邑內官廳里六番地 文 致 順 電話一七番

入院隨意 (普通病舍 傳染病舍) 利川病院 電話長八番 院長 吳 東 一 醫員 朴 敬 鎭 產婆 長友美津 分局長 洪 大 喆

利川邑內 利川釀造場 許 勳 電話二五番

利川、水原間 中央自動車合資會社 利川支店 社長 宋柴燒 主 任禹淳 電話七番

◇金泉◇

諒闇中欠禮
金泉郡廳 職員一同
庶務係 電話三〇五番
財務係 五番

諒闇中欠禮
金泉面
面長 高崎親和
外職員一同
電話一一二番

諒闇中欠禮
金泉
道立金泉醫院
院長 輕部久喜
電話二七一番

金泉錦町
同生醫院
院長 金鍾鎬
電話三〇〇番

金泉郡代項面直指寺驛前
共信興產組合
組合長 鄭煥玟
專務理事 李坤碩

金泉郡金泉面旭町
魚菜市場經營
永和商業株式會社
社長 黃健秀
專務取締役 尹海炳
電話一七五番

金泉郡金泉面黃金町
漢南理髮館
慶南自働車停留所
日鮮雜貨店
鄭漢喆

金泉大和町
大和旅館
韓在五
電話一二八番

金泉南山町
呂煥玉

金泉南山町
金泉公立普通學校學務委員
永和商業株式會社取締役
裵度潤

金泉郡代項面
直持寺
主持 尹退雲

慶北線玉山驛前本店
金泉支店
米穀商 李相敏
主任 朴泰鎭

慶北線玉山驛前
承認 ㊄慶玉運送部
穀物貿易商 崔觀星

諒闇中欠禮
尙州郡邑內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支店長 渡部太三郎
電話一二番

尙州郡尙州面
職員一同
電話九番

諒闇中欠禮
金泉大和町
齋藤自動車株式會社
金泉出張所
電話一五八 二七八番

諒闇中欠禮
淺野セメント株式會社金泉特約店
東京火災保險會社金泉代理店
三井物產株式會社金泉特約店
日本石油株式會社金泉特約店
井上材木部
井上貿易部

諒闇中欠禮
金泉錦町
㊇松本材木店
電話長一五七番
電略マ又ハマツ
振替京城一五六〇六番

諒闇中欠禮
金泉城內町
朝倉精米所
電話二三〇番

諒闇中欠禮
金泉驛前
セールフレザー株式會社代理店
フォードサブディラー
河上商會
河上松治
電話一五九番
振替京城六七二六番

慶北線玉山驛前
金德衡

慶北線靑里驛前
△山一運送部
主任 黃一鎬

尙州郡咸昌面
職員一同

尙州郡邑內
米穀商 趙駿衍

尙州邑內
プリミヤ、ケンネト自轉車商
朴叔伊

慶北線靑里驛前
米穀商 金弼龍

慶北線靑里驛前
米穀商 尹大五

慶北尙州郡邑內
辯護士 石鍾九

諒闇中欠禮
慶尙北道尙州邑內
吉野尙太郎
電話二五番 振替京城三〇七〇番

尙州郡廳
尙州郡產業組合
職員一同
電話七

諒闇中欠禮
尙州郡邑內尙州金融組合
理事 志賀半作
電話一一八番
尙州郡邑內高山金融組合
理事 白搖準三
電話一五番

尙州郡尙州面西町
濟口醫院
醫師 朴正紹

諒闇中欠禮
金泉本町
金泉面協議員 小塚主計
電話一〇二 二一八番

諒闇中欠禮
金泉錦町
料理屋大盛庵
電話一一九番

諒闇中欠禮
金泉錦町時計眼鏡商
小菅商店

金泉錦町
金泉繩叺購買組合
電話二五三番
電略〇テン又ハ〇テ

諒闇中欠禮
金泉本町
米穀商高田麻吉
電話二三八番 五七番

諒闇中欠禮
金泉大正町
居昌自動車株式會社
金泉營業所
主任 五木與十郎
電話一六四番

諒闇中欠禮
尙州郡內郵便局長
武正夫

諒闇中欠禮
金泉錦町
美濃屋 看板ペンキ塗
請負 看板屋
主 近藤理平

諒闇中欠禮
金泉城內町
金泉面協議員 多胡敏

諒闇中欠禮
金泉錦町
金泉面協議員 小川不羈雄
電話一〇六番

諒闇中欠禮
金泉錦町
岡村洋品店
電話一六八番

諒闇中欠禮
金泉大和町
司法代書人 蘆原藤一
電話一四〇番

諒闇中欠禮
金泉南山町
內科外科產科 關醫院
電話四五番

諒闇中欠禮
金泉警察署
職員一同
電話六番

諒闇中欠禮
金泉
少年刑務所
職員一同
電話二四五番

諒闇中欠禮
慶尙道
金泉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電話一六九番

諒闇中欠禮
慶尙道
金泉公立高等尋常小學校職員一同
電話四四番

諒闇中欠禮
金泉郡
鳳溪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諒闇中欠禮
金泉郡
果谷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諒闇中欠禮 金泉本町
教科書、新聞雜誌、文房具、運動具類
立川書店
電話一一一番 振京七三八〇番

諒闇中欠禮
金泉本町
貿易商 福岡直助商店
電話二八番
電略(〇ア) 五番
振替京城八三三一番

諒闇中欠禮
金泉錦町
和洋料理 初音食堂
電話一六〇番

諒闇中欠禮
金泉錦町 電話三三五番
金乃泉 金泉櫻
銘酒 金乃鶴特約店
正宗 吉田製造元
電話三三五番 吉田酒店

諒闇中欠禮
金泉本町 米穀皮革貿易
久邇商店
電話五八番 電略ヒ又ハケ
振替京城一一三八五番

諒闇中欠禮
金泉南山町
石炭薪炭ヨー
三榮人力車
三榮自轉車
北村榮湯
主
電話二三番
榮湯電話一二七七番

諒闇中欠禮
金泉本町
道評議員
伊藤季薰
電話二番

◇谷山◇

谷山郡東村面事務所
面長 李承旭
會計 盧宗熙
書記 尹恒默
書記 金福海
書記 洪性夏

谷山郡
谷山面事務所
面職員一同

谷山郡
雲中面事務所
面職員一同

谷山郡雲中面
面協議員 車炳善

谷山郡雲中面
面協議員 崔鎭咸

谷山郡雲中面
面協議員 朴永燮

谷山郡雲中面
面協議員 金允鎰

谷山郡東村面關遊里
區長 盧鳳熙

谷山郡雲中面洞浦里
區長 桂寅植

谷山郡雲中面洞浦里
崔相弼

谷山郡覓美面新坪
新坪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谷山郡覓美面事務所
面長 崔鴻基

谷山郡覓美面
新坪金融組合
職員一同

谷山郡覓美面
面協議員 朴性培

谷山郡覓美面
面協議員 康璿煥

谷山郡覓美面新坪
綢緞布木商 金根沃

谷山郡覓美面新坪
綢緞布木商 林晃相

諒闇中欠禮
大邱地方法院尙州支廳
判事 中村秀夫
判事 金鍾錫
電話百二十二番

谷山郡谷山面
面協議員 李重鉉

谷山郡谷山面陵洞里
中華料理平壤館 金應模

谷山郡谷山面赤城里
天道教宗理院

谷山郡谷山面赤城里
司法代書 李基燮

谷山郡谷山面赤城里
司法代書 孫憲

谷山郡谷山面南川里
李河燮

谷山郡邑內
海陸物產貿易商 田龍現

谷山郡邑內
麵屋及雜貨商 金昌善

谷山郡邑內
鍮器店 田樂盈

谷山郡邑內陵洞里
大成旅館 金奉俊

谷山郡邑內陵洞里
尹泰益

谷山郡邑內
公醫 金永七

谷山郡邑內南川里
金銀細工業 金昌洙

谷山郡邑內南川里
天道教谷山教部 李興淳

谷山郡谷山面
面協議員 李世雄

◇晉州◇

晉州郡晉州面飛鳳洞
趙虎濟

晉州郡晉州面內城洞
金斗台

晉州郡晉州面大安洞
姜潤永

晉州郡晉州面平安洞
趙顯塔

晉州郡晉州面中城洞
肥料雜穀商店 金斗玉

晉州郡晉州面上鳳里
金炫國

晉州郡智水面勝內里
許善九

晉州郡農會

晉州郡畜產組合

晉州郡晉州面內城洞
姜復淳

晉州郡晉州面飛鳳洞
鄭文永

晉州郡晉州面玉峰里
金柱錫

晉州面內城洞
姜孝淳

晉州郡晉州面中城洞
鄭琮鎬

晉州郡晉州面飛鳳洞
成泰晉

晉州郡晉州面飛鳳里
朴璋烈

晉州郡晉州面平安洞
司法代書所 金思永

晉州郡晉州面錦町昌信堂
藥種商漢藥材貿易 姜雲秀

晉州郡晉州面錦町
싱거—裁縫機械會社 任貞鎬

晉州郡晉州面錦町永和院
藥種商漢藥乾材藥房 趙鏞泰

晉州郡晉州面飛鳳洞
趙鏞權

晉州郡晉州面平安洞
徐允甫

晉州郡平居面貴谷里
鄭允根

晉州郡晉州面飛鳳洞
全鳳世

晉州郡晉州面內城面
尹在鉉

晉州郡晉州面內城洞
姜道淳

晉州郡晉州面東城洞
謙益精米所 黃鍾和

晉州郡晉州面東城洞
金昌允

晉州郡晉州面平安洞
李永斗

晉州郡晉州面上鳳里
南廷八

喪中欠禮
晉州郡奈洞面三溪里
朴奎錫

晉州郡晉州面平安洞
趙在厦

晉州郡晉州面錦町元昌藥房
藥種商漢藥材貿易商 元準玉

晉州郡晉州面飛鳳洞
趙鏞夏

晉州郡晉州面平安洞
晩隱堂藥房 李家源

晉州郡水谷面士谷里
河泳珍

晉州郡平居面貴谷里
鄭泰奭

晉州郡奈洞面三溪里
朴在秀

晉州郡
井村面事務所
職員一同

晉州郡水谷面士谷里
河九鎭

喪中欠禮
晉州郡晉州面平安洞
徐相弼

喪中欠禮
晉州郡奈洞面三溪里
朴文錫

喪中欠禮
晉州郡晉州面大安洞
金東式

文盲退治의 (二) ◇實際的方案如何

一 엇지하면 이천만이 다글을알게할수가 잇겟슴닛가
二 곳실행할수잇는방법이 무엇입닛가

普成專門 朴勝彬

一、義務敎育實施 글모르는 사람을 업시하는데야 의무교육(義務敎育)을실시하는 것이 데일이겟지요마는 이것을실행할수가 잇슬는지 업슬는지가 문데이지요 현금우리조선사람 생활이자녀로 하여금의무교육을밧게할만한여유가업는 것이사실 이지마는 여하간제도(制度)나의무교육제로 되엿스면 엇더할가합니다그러고 조선각도 각디에보통학교수효를 훨신 느러서학령아동의 취학문데 갓흔것도 해결하여야 할일이지요 물론학교가 부족해말성이 되면서도당국자는 예산이업다는 것을유일한 답변으로 압니다마는지금예산을 가지고 라도간당국자가 성의만 잇다하면 그질(質)에잇서서못한뎜이잇슬는지모르겟지마는그량(量)에잇서서는 지금보담 훨신나을줄압니다

二、只今無可奈何 방법이무엇 이냐고? 내가당국자가된다면 혹무슨 방법이잇슬는지모르나의견(意見)은소유도 업고말할수도 업지안습닛가보통 학교수효를 증가한다든지 의무교육제도를 실시케한다는 것은우리 마음대로할수업는 일이닛가요 보통학교증설에 한위국고 보조를바라고잇지마는그것은일디방에만여용 되는말이지 전조선으로본다면 맛치한가지요 결국조선사람이 내는 세금으로조선에학교를설치하는것이닛가한디방에서 국고보조를 어드면다른 디방에서는 그만한삭재를 당해야되닛가요 그리고학교회당 의무교육 실시등을당국에 말하면너희도여러번데엇지하느냐 할터이니 지금조선은 위정와 민중이너와나로난호아잇지 안습닛가 결국우리로는방법이업지요

普善女青 俞珏卿

一、有志者의奮起 문맹타파운동(文盲打破運動)은수년전부터 조선녀자긔독교청년회(朝鮮女子基督敎靑年會)에서 하여오는중입니다 마는조선사람으로써모다글아는사람이되게하자면도회디나산곡을물론하고 글아는사람이 이데나서 모르는사람을 가르키게하는것이 데일이겟지오 무슨형식을 취하야 학교나야학으로하는것도조켓지요마는그럴수업스면 연필과 공책만 가지고도 할수잇고 나무뻐기를써서거서영바닥에글을써서모르는사람을 가르켜도 조흘줄압니다「ㄱ」짜를가르키고「가」짜를가르키고두가지아는사람이면 사람이 한가지아는사람을 가르키어서 누구든지 글아는사람이면 다이운동에 참가하도록한다면 조선사람 이천만이 다글아는사람이될줄압니다

二、中央에서從應 그 실행방법으로는현재녀자긔독교청년회에서하는모양으로엇더한 단데에서든지 뎍당한시긔마다 회원몃사람식이 궁벽한디방이나 산곡으로 드러가서 일주일혹은 이주일식그동리글모르는사람을모아가지고가르킨후에 본래부터 글아는그동리사람에게이운동을부탁하고 또다른동리를가서 그가치하엿스면될줄압니다지금와가지붐급이나명예에서교편을잡아왓지마는 만약 이운동에참가하는사람이모다조선의문맹을타파하자 이천만이 다글아는사람이되게하자하는열렬한마음으로 이문맹타파 운동을게속한다하면그러큰힘이될지안을줄밋습니다

強盜와 火災

面刀를奪取 一夜에兩處侵入
쌀과리발긔구를뺏고잡혀 城津邑內米穀廛에強盜

함남 단천군남두일면리상리(咸南端川郡南斗日面貳上里) 오백칠십칠번디리귀남(李貴南)(三○)은지난십이월 이십오일 오전세시경에성진욱뎡(城津旭町)이백팔십칠번디에서미곡상하는라천한(羅千漢)의방에침입하야 쌀스텔과 리발긔계와 면도칼을훔쳐가지고 그이웃뎡밧으로 드러가려고하는것을 전긔주인이 붓잡으랴고한바 그자는 면도칼을가지고 대항하야전긔 주인의내외에게적지안은 상처를내이고 도망하랴 하엿스나 결국은붓잡히어경관에게 넘겨주엇다는데 그자는방금 성진경찰서에서 취조를맛친후일간으로검사국으로송치되리라더라(성진)

中國人鐵道工夫 强盜로橫行掠奪

이일오전두시경에일본 천천시(川淺市)남부텰도(南部鐵道)공사장에서중국인로동자이십이명과조선인로동자 두명이 일단이되여동공사장에비치하여두엇든 동선(銅線)을절취하랴고 번보는사람을 협박하다가 경관구십명이 현장에 급행하여 전부테포하엿다더라

苦草가루써언고 金時計를훔처가

지난삼십일일밤 아홉시 경에대판랑화구원뎡(大阪浪花區元町)일뎡목귀금속상뎜강상수구(江上數人)외가가에 롭긴을살사람인체하는 수상한청년 두명이나타나서 시게를 사자고하야여러가지 금시게를내어 노케한후갑작히주인의 눈에고초 가루를뿌리어서 눈을못뜨게 하고금시게열세개 시가일천삼백원 어치를도적해가지고 도망하얏는바 그소관 경찰서의 손에두명이한거번에테포되엿다더라(대판년보)

論山에小火

충남론산군론산읍본뎡(論山郡本町) 김종규(金鍾奎)의집에 지난삼일오후세시반경에출화하엿다는데 손해는방금회인듯하다더라(동경뎐보)

東京大火
전반소실륙호

재작사일 오전여섯시 이십분에동경시외 대대목궁지곡(東京市外代代木宮之谷) 일천오백륙십팔번디 비인집에서 불이나서삽시간에 이웃에연소되여 전소십일호와 반소이호를내이고 동원인은방조사중이라하며 불난원인은독소즉등소다가붙이난것 이라더라(론산)

短刀棍棒强盜隊
네명이려수에서십오전강탈

전남려수(全南麗水)에서는지난일일 밤중에삼일면호명리(三日面虎鳴里)부호홍정규의집에 단도와곤봉(棍棒)을가진강도(强盜)네명이침입하야 전긔홍씨의 당남경의(敬義)(□)의자는방을 습격하야 곤봉으로 란타하는동시에가진돈을내라고위협할지음에맛참그의아버지가이일을듯고 밧게나와 동리사람을 부르는바람에 방안에노엿든주머니를 쌔아서가지고집흥뛰여나가자최를 감추엇다는데 피해된것은 주머니에드럿든돈십오원이라는데이급보를 접한려수경찰서 에서는 부근일대를수색하는중이나 지난삼일까지하동의단서를엇지못하엿다더라(려수)

墓碑를盜賊
우차에실고다녀

이일새벽 서대문밧 독립문(獨立門)압흐로엇던자 서명이 구루마우에이상스런큰돌한개를실고 드러오는것을 서대문서 순사가 발견하고이상히녁여곳 동서로 다리고가서 취조하여본 결과 남의무덤에세운 비석을 훔처오는 것으로판명되엿는데그자들은고양군 은평면록번리(高陽郡恩平面綠磻里)권긔봉(權基鳳)(□)외 두명으로피해자가 불명하야목하조사중이라더라

正初에處女逃亡

김포군양동면등촌리(金浦郡陽東面登村里)에사는 류흥길(劉興吉)(□)류봉희(劉鳳姬)(十八)두처녀는 지난달이십구일 밤에 작을지어어데로인지다라나버렷다는데 서울로 드러온혼적이잇슴으로 그부모들은 직사일오전에시내각경찰서에수색원을데출하엿다는바 그들은 다모령임으로 유혹을당한것인듯 하다더라

朝鮮體育會主催 本社後援 第二同氷上競技中止

演藝 音樂

新年劈頭에誕生한 極東키네마社
第一回作品은記事探偵劇

김철산(金哲山) 김수로(金浩) 씨외수씨의합선(好旋)으로극동(極東)『키네마』사를발긔하야창립사무소를 시내종로(鍾路)삼뎡목 일백륙십삼번디에두고데일회작품은 긔사탐뎡극(記事探偵劇)인괴인의정체(怪人의正體)라는 것으로촬영을개시하겟다하며 영화에뜻을두는동지자는 누구든지환영하고될수잇는대로규합할작정 이라더라

勞働少年慰安音樂大會

반도소년주최로 오는이십삼일에 시내대부동(大阜洞) 반도소년회(半島少年會)에서는동회위원김영배(金炯培)외수씨의 진력으로로동소년위안음악회(勞働少年慰安音樂會)를오는이십삼일밤에 시내종로(鍾路)중앙청년회관(中央靑年會館)에서개최하리라는데 동음악회를개최된동긔는 낫이면공장에가서일을죽도록하며 밤에는가고십흔학교에도 못가고몸이피곤하여 그만쓰러지여 아모위안도밧지못하는 그들을잠간동안이라도쾌락한 위안을주기위하야하는것 이라는바 일반로동소년들에 한하여서는 초대권을발행치 안하리라 하며특히일반사회유지의 만흔동정을바라는터이라더라

朝鮮古代劇『不忘曲』始映
土星會撮影部作品 脚色監督李圭卨

토성회(土星會)데일회 작품인조선고대극불망곡은 지난금월예활영을맛치고 그동안정리중에잇드니 명칠일밤부터위선시내인사동 조선극장에서봉절상영할터이라는데 그출연배우들의역할은다음과갓다더라

主演
孔鐵……徐月影
夫人……金少珍
鄭貞夫人……鄭賢鄕
王九龍……黃耕臨

助演
觀察使……朴齊行
白丁……金元輔

寫眞=불망곡의一場面

演藝寄稿歡迎
◇投稿種類及方法◇

印象 극이나 영화에관한관들의인상이니극히간단히 또는요령요히불편무당히쓰되십사자일행십오행이내로=字數分明히=川紙는原稿用紙

希望 조선연예게의관한관들 모든희망이니극히간단히요령요히불편무당히쓰되십사자일행오십행이내로字數分明히=川紙는原稿用紙

不平 극게와영화계에대한불평흑은극장에대한불평이니극히간단히또는요령명요히불편부당히쓰되십사자일행십행이내로字數分明=川紙는原稿用紙

第一效力잇는

구라부美身크림

クラブ クリーム

美身

구라부洗粉 本店謹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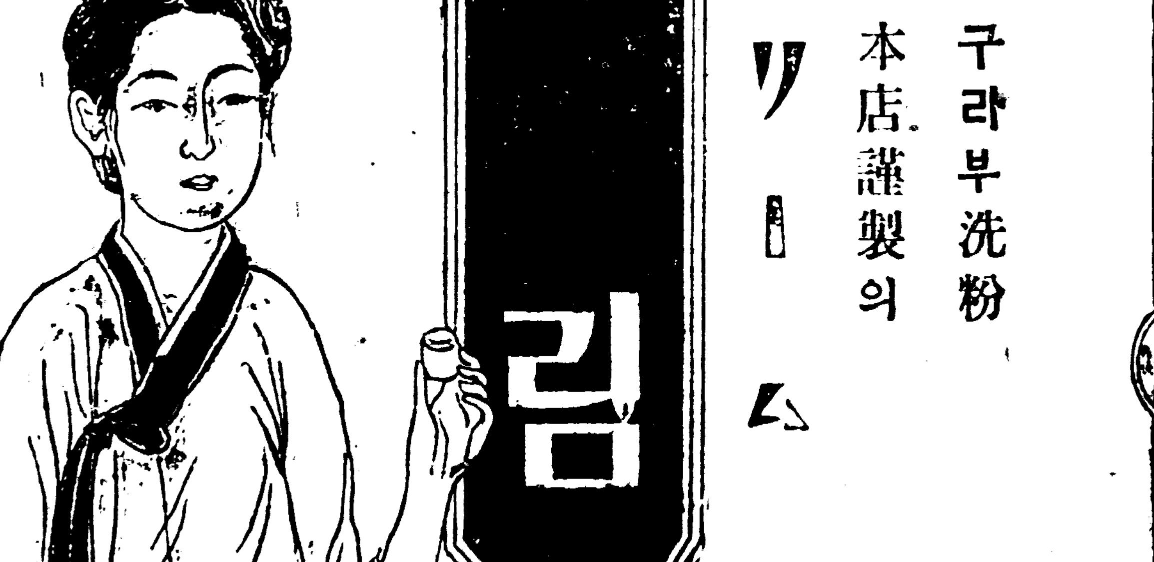
이구라부美身그림은미낫의美를더하며白粉을잘오르게하는品質第一트지안코걸지안케하는것으로 惶悚히

皇后宮職御用品

되는光榮을豪하고잇는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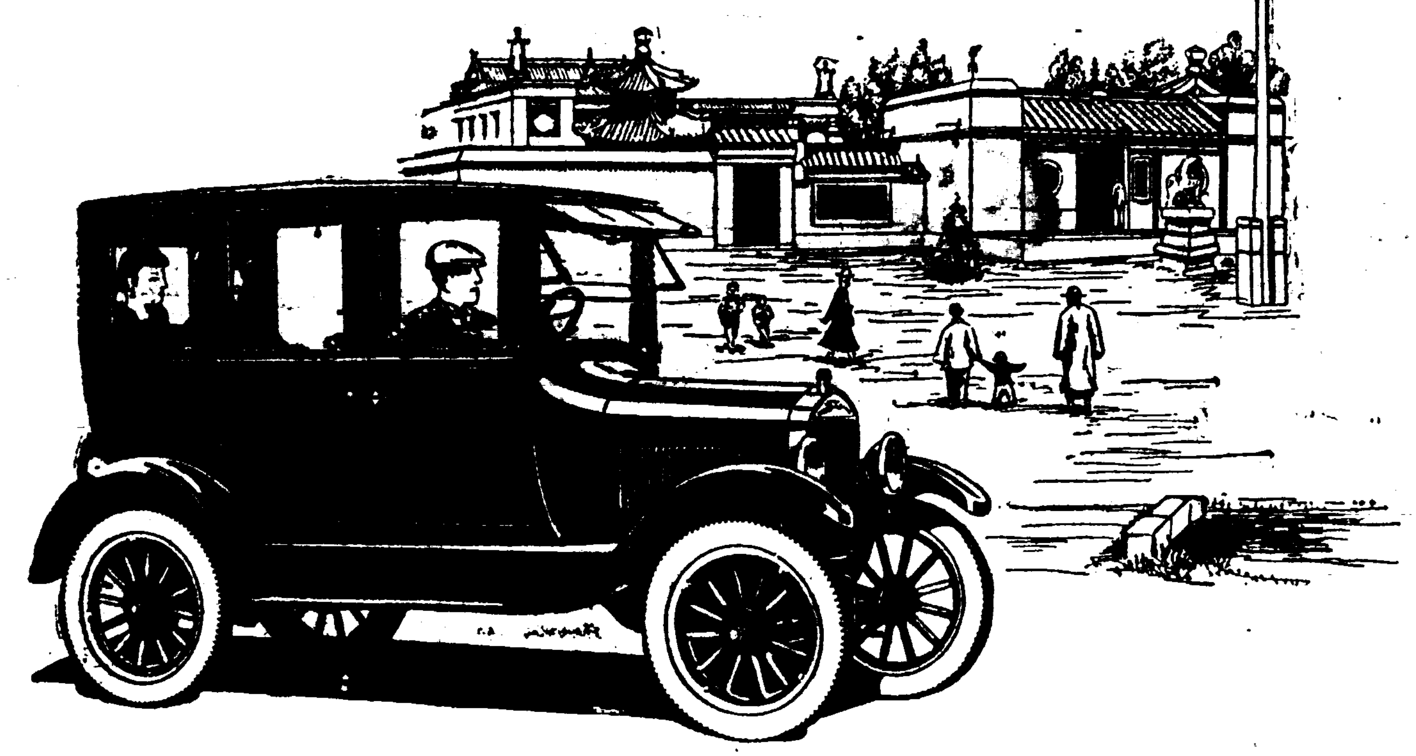
優良한技師에依하야製作되優良品

化粧의順序



美人

Ford
또ー드



自動車界의 驚異

優美하고高尙한改良『또ー도、쎄단』型처럼近來自動車界의興味를喚起한것은업습니다。

灰色에靑色줄잇는車室의內部는、車體의塗色과調和가되고 얏고、깁흔座席은非常히거러안기조흐며、出入門은널고、위를덥는遮陽과、큰『펜더ー』는一層外觀을훌륭하게하엿습니다。

價格은此種『쎄단』型의엇더한것보다低廉합니다、그리고、堅牢한것과經濟가되는것은只今새삼스럽게말삼할必要가업습니다。

또ー드、쎄단
金二千六百七十圓 京城又는釜山貨渡價
쎌프、스탓터ー及 쎌눈、타이야添附

또ー드特約販賣店
株式會社 쎄일商會
京城竹添町一丁目七五番
私書函西大門第九號
電話光化門三九六•一六一九

陳列室
京城鍾路四丁目壹番
電話光化門一三三二
全朝鮮及지방쎄이비스
全朝鮮

日本또ー드自動車株式會社

◇馬山◇

謹陳新年賀禮
宜寧郡廳

宜寧自動車部
孫洪晙 電話七番

昌原郡昌原面西上里
金轍鉉

昌原郡昌原面道溪里
金秉煥

昌原郡城內金融組合
理事 水內日出高
書記 鄭光朝
書記 薛翰植
金景芝
金順伊

昌原郡城內公立普通學校
校長 佐藤嘉十郎
訓導 趙秉基
訓導 李奎澄
訓導 秦善男
訓導 朴惠泰
訓導 趙在式
訓導 尚琪
訓導 李相九
訓導 阿部はまの

昌原郡北面事務所
面長 金鍊圭
面職員一同

同馬山府石町
報德商會朝鮮支店
府協議員 張在軾 電話一二三番

宜寧郡邑內東洞
李濟熙

宜寧邑中洞
中興旅館 孫漢奭

宜寧邑東洞
金甲鎭

宜寧面
職員一同

宜寧邑南門通
布木雜貨商 金碩善 電話六番

宜寧郡邑內東洞
李□龍

宜寧邑內
救世醫院
公醫 高達升

昌原郡丹西面新甘里
金占業

昌原郡內西面虎溪里
面協議員 金聖培

昌原郡熊南面昌谷
米穀商 申容均

昌原郡熊南面龍亭
金丙坤

昌原郡熊南面月林
閔祥鎬

昌原郡熊南面月林
米穀商 肥料商 金德仲

昌原郡
龜山面職員一同

馬山府幸町
金宗瓘

昌原郡鎭東
米穀雜貨肥料 金相範商店 電話四番

昌原郡鎭田面谷安里
金敦洙
金彰洙

馬山府午東洞
嶺南心眼共濟院馬山支部
敎監 李天儀
支部長 尹甘同

昌原郡昌原面道溪里
朴和烈

昌原郡昌原面道溪里
金圭浩

昌原郡昌原面西上里
朴月仙

昌原郡昌原面西上里
金琪淳

昌原郡昌原面事務所
面長 李光珣
書記 安正奎
書記 朴在寶
書記 梁儀煥
書記 李弼榮
書記 金時篤
技手 李柱尹
金湘沅

昌原郡昌原面中洞里
元達洙

昌原郡昌原面中洞里
薛極銖

昌原郡城內鍾路通
綿布商 鄭敬之商店
主任 鄭正守

昌原郡昌原面召番里
米穀商 金文淑

昌原郡北面花川里
代書所 尹赫祿

昌原郡北面花川里
米穀商 金相龍

昌原郡北面鑑溪里
曹成鎬

昌原郡北面下川里
面協議員 金鎭桓

昌原郡北面鑑溪里
鄭文朝

昌原郡北面鑑溪里
黃義秀

昌原郡上南面龍池里
金鍾植

昌原郡上南面知歸里
南一穀物商會
主 盧庸洙

昌原郡上南面退村里
安承達

昌原郡上南面西谷里
金昌宇

昌原郡上南面鳳林里
梁國成

昌原郡熊南面完岩里
面協議員 金興淑

昌原郡熊南面昌谷里
朝日藥房 徐奇碩

昌原郡熊南面上福里
面協議員 黃洙建

昌原郡熊南面內洞里
各種發動機修理士 鄭守植

昌原郡熊南面外洞里
彭鍾琇

昌原郡熊南面木里
面協議員 朴萬祚

昌原郡熊南面外洞里
金大永

昌原郡熊南面月林里
鄭昌佑

昌原郡東面月岑里
嚴成燮

昌原郡東面新方里
朱基東

昌原郡東面事務所
面長 朴永鎬
會計 金柄執
技手 宋吉錫
書記 吳東碩
同 金桂律
同 貝秉浩
同 李鍾益

昌原郡昌原面內洞里
甘泳希

昌原城內鍾路通
日用雜貨商店
主 朴太鉉

昌原郡昌原面召番里
金基燮

昌原城內
昌原自働車部

昌原面西上里
金一鉉

昌原郡昌原面東井里
面協議員 福田貞一

昌原鍾路通
檜山洋靴工場
主任 金沂錫

昌原郡北面下川里
議官 金炯大

昌原郡大山面牟山里
禹道洪

昌原郡北面鑑溪里
金鍾甲

昌原郡北面鑑溪里
曹榮鎬

昌原郡北面代山里
金貞秀

昌原郡昌原面西上里
薛永喜

昌原郡昌原面北洞里
李起烈

鎭海線上南驛前
㊅丸大運送店
主 裵浩英

鎭海線上南驛前
昌南運送店
主 崔文錫

鎭海線上南驛前
㊂丸二運送店
主 朴月湫

昌原郡上南公立普通學校
校長 濱口正男
訓導 徐尚根
訓導 張權東
訓導 李廷泰
訓導 李圭學

昌原金融組合上南出張所
理事 金敬文
書記 朴晉守

昌原郡上南面事務所
面長 吳鍾泳
會計 金炯寬

鎭海線上南驛前
米穀商 許甲

昌原郡鎭東面新基里
普光堂藥房 李承鳳

昌原郡鎭田面良村里
面協議員 文尚穆

昌原郡鎭田面五西里
五西副業獎勵會

昌原郡鎭東面鎭東
田子實

昌原郡鎭田面昌浦里
昌湖夜學會

昌原郡鎭東面校洞
面協議員 朴基淳

昌原郡鎭東面校洞
李謹雨

馬山府元町
米穀商 黃奭鍾

舊馬山魚市場
海産物委託商 李壽榮

舊馬山魚市場
海産物委託商 朴璨琦

舊馬山魚市場
海産物委託商 金敬會

馬山府元町
海産物貿易商 宋璿旴商店

馬山府元町
綢緞布木商 郭泰吉

馬山府俵町
濟東醫院 金顯文

馬山府午東洞
蓬萊館 于嘉濱

馬山府萬町
信昌洋靴店
丁守鳳
朴英基

馬山府石町
眞油製造所 申仁善

馬山府萬町
南昌醫院 彭在業

舊馬山魚船會
合浦社

馬山府元町
共信貯蓄組合

馬山府石町
綢緞布木商 朴成實

馬山府元町
萬門社 崔相麟

馬山府元町
綢緞布木商 黃基秀

馬山府俵町
稻扱機特約店 林釆圭

馬山府校原洞
徐丙武

馬山府校原洞
金羽坤

馬山府萬町
鶴仁醫院 李順弼

馬山府萬町
南鮮券番

馬山府午東洞
鄭雲仙

馬山府石町
克山洋靴店 朴淳英 電三四二番

馬山府元町
綢緞布木商 金九炫

馬山府石町
白一書店 羅琪煥

昌原郡龜山面架浦里
面協議員 金斗榮

馬山府俵町
李起漢

◇信川◇

黃海道信川驛前
滿鮮穀物貿易委託業 洋貨物取扱
共同商會本店
㊈運 明信運送社 長電話二〇番

南滿洲四平街
特産物貿易委託及精米
共同商會支店 長電四一五番
主任 吳仁燮
主務 吳智燮
白明嘉

信川驛前
米雜穀貿易委託賣買業 鐵道運送業
三信商會
三光運送部 長電話五番
主 金泰仁

信川驛前
穀物商協會員一同
事務所●長電五番

信川驛前
海陸物産 米穀貿易 運送取扱
共信商會
附屬 ㊄運送部 長電一四番
同 元致玹

信川驛前
第一東洋精米所 信川支店 長電三八番
第二東洋精米所 信川支店 長電三七番

信川邑內驛通
三星醫院
醫師 柳昌萬 長電二四番

信川邑內
司法行政 黃啓鉉代書所

信川驛前
海州 殷栗 直通海信自動車部
主 高福出 長電一八番

信川邑校塔里
果樹苗木蔬菜 農産草花山林 觀賞植物種子 各種鷄卵孵卵器 書籍製繩機 火ノ出ルポンプ
信川種苗園
主 孫正益
振替京城一〇九四一番 電略ソン又ハ(全)

信川驛前
米穀貿易 東國商會 長電話二五番
主 金泰國

信川驛前
穀物貿易 普信商會 長電三六番
主 李源璋
金泳八

信川驛前
米雜穀貿易商 李泰煥商店 長電二六番

信川邑內
海陸産物貿易及委託業 維新商會 長電三四番
主 金相燦

信川邑
米穀委託賣買 郭永奎商店 長電三一番 電略エイ又エ

信川
穀物貿易 李承福商店 長電五二番

信川邑(海州通)
海星醫院
醫師 崔斗顯

信川邑(安岳通)
中央醫院
醫師 全鳳來

信川邑安岳通
信愛醫院
醫師 權基觀 長電四六番

信川邑郡廳通
公醫 福岡醫院
醫師 福岡良亮 長電三二番

信川邑
濟世醫院
醫師 方合信 長電一〇番

信川邑內
和洋各種雜貨 金濟奎商店 長電三五番

信川邑內
各種雜貨書籍 兄弟商會 長電五一番
主 李承杜

信川邑內
各種雜貨菓子陶器 朴應秀商店 長電一三番 振替京城七三三三

信川邑內
綢緞布木 朴承鉉商店

信川邑內
綢緞布木 趙啓燦商店 長電八番

信川邑內
綢緞布木 信川商店
主 鄭圭瑛

信川郡川珍面
貝葉寺
住持 姜九峯

信川邑內
文廟直員 姜鳳鉉

信川郡溫泉面
面營 共同浴湯

信川溫泉
大成旅館
朝鮮支那料理 大成館
主 李浩善

信川溫泉
朝鮮料理支那料理 靑松亭 (自用溫泉)

信川溫泉
朝鮮料理支那料理 花春館

信川溫泉面松亭里
道評議員 溫泉面長 閔奎植

信川郡溫泉面
會計 白明箕
書記 朴泰甲
書記 閔鎭植
書記 閔承植
書記 張斗柄
技手 柳承哲

信川溫泉
大昌旅館
主 韓基洙

信川
東亞日報社
信川支局員一局

信川三面松梢里
李繼天

信川驛前
㊍永盛運送部 長電三一番
主 李□寬

信川驛前
朝鮮汽船會社 和平堂藥房代理店 和洋旅館
信川旅館 長電二九番
主 李敎根

信川邑內
司法行政 崔善峻代書所

信川驛前
西鮮活版所 長電二一番
主 金奎宗

信川邑內安岳通
入齒師 金剛齒科院 取次電二〇番

信川邑內
趙昌燮洋靴店
主務 趙昌成

信川邑內
中華料理 同樂館 長電四九番

信川邑內郡廳前
高等寫眞 黑田寫眞館

信川邑內(載寧通)
朝鮮料理支那料理 太平館 電話三九番
主 劉順弁

信川邑
穀物檢査所
所長 阿部源治

信川
信川郵便所
所長 大槻芳兵衛

信川郡信川面
面長 金聲淑
會計 金光奎
書記 蔣漢奎
書記 李海崙
書記 蔡柄崙
書記 全興錫
技手 尹敎禹

信川邑
私立敬信學校
附屬幼稚園
職員一同

信川
信川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電話…